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高慧禎

현대 패션과 메이크업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의 유형 분석

An Analysis on the Orientalism of
Modern Fashion and Make up Trends

2003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學專攻

金 惠 淑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高慧禎

현대 패션과 메이크업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의 유형 분석

An Analysis on the Orientalism of
Modern Fashion and Make up Trends

위 論文을 藝術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3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學專攻

金 惠 淑

金惠淑의 藝術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定함

2003年 12月 日

審査委員長 지 상현 

審査委員 김 박래 

審査委員 고 혜정 

국문 초록

20세기에 들어 민족주의의 등장으로 동양이 정치, 경제등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로 부상하게 되고, 포스트모더니즘과 같은 문화요인과 결합하면서 동양풍은 세계의 문화를 선도하는 하나의 조류인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이라는 문화사조로 자리잡게 되었다.

오리엔탈리즘은 일반적으로 동양적 취미·동양적 예술의 애호를 뜻하는 것으로 19세기 낭만주의의 한 경향인 이국취미를 대표하는 오리엔트 즉 동방세계에 대한 동경을 표현의 동기 또는 제재로 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을 단지 취미나 흥미만으로 또 지배하고 정복하는 대상으로서의 존재가 아닌 동양을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인식하고 동양의 가치관, 문화기반에 관한 폭 넓은 이해와 관심을 갖고 더 나아가 동양적인 사상과 정신을 연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서양문화에 기인한 패션이 세계적 유행을 주도하여 상대적으로 비주류로 인식되어왔던 오리엔탈리즘은 새롭고 다양한 패션으로 그 응용이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으로 볼 때 오리엔탈리즘이 현대패션과 메이크업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대패션과 메이크업에서 재해석되고, 부각되고있는 오리엔탈리즘의 변화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할 수 있었다.

첫째, 중국은 고유의상인 치파오가 현대패션에서 그 형태적 특징이 가장 많이 응용되고 있으며, 실크직조와 금색, 황색색조, 용문이나 꽃모양, 식물문양 등의 선호가 두드러져 현대패션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

둘째, 일본은 기모노에서 레이어링의 아이디어를 얻었으며 직선재단의 비구조적인 형태와 겹쳐입기의 창작법을 서구패션에 등장시키고 직물의

장식에 주목하도록 하여 색채와 전통문양의 발달을 가져왔다.

셋째, 인도는 사리, 도티등 전통복식의 복잡한 창작방법을 단순화시켜 서구복식의 형태나 인도 전통복식 형태와의 절충양상으로 표현되며 페이즐리문양과 인도고유의 자수 등도 현대디자인에서 활용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넷째, 한국은 중국, 일본, 인도 등의 서구패션사에 비해 그 도입정도는 미비하나 1990년에 들어서면서 한국디자이너들의 국제무대로의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특성에 따른 오리엔탈리즘은 현대사회에 적합하도록 그 형태는 간소화되었지만 고유의 형태, 문양, 색채 등으로 현대패션과 메이 크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시대적 흐름과 예술적 배경에 맞추어 더욱 풍부하고 새로운 감성으로 현대에 나타나고 있다.

갈수록 각종 기술의 최첨단화로 인하여 세계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전 세계가 단일 공동체가 되어 각 민족 고유의 문화적 차이가 점점 사라져 가는 시대에 'New Orientalism'이 보다 더 창의적이고 다 문화적인 형태로 자연주의적, 미래주의적, 전통주의적인 요소를 혼재하고 있는 패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써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 차

국 문 초 록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3
II. 이론적 배경	4
1.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의 정의	4
2. 오리엔탈 스타일(Oriental Style)	8
III. 패션과 메이크업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	11
1. 패션(Fashion)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	11
2. 메이크업(Make-up)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	27
IV. 지역특성별 오리엔탈리즘의 변화	35
1. 중국	35
2. 일본	45
3. 인도	55
4. 한국	66
V. 결 론	79
참 고 문 헌	83
ABSTRACT	85

그림 목차

<그림 1> 동양적 스타일의 관계	10
<그림 2> 블리오(Bliaud)	15
<그림 3> 코르사주(Corsage)	15
<그림 4> 블루우머(Bloomer)	15
<그림 5> 뷔르누(Burnous)	15
<그림 6> 하렘팬츠(Harem Pants)	25
<그림 7> 기모노 코트(Kimono Coat)	25
<그림 8> 밀리터리 룩(Military Look)	25
<그림 9> 뉴 룩(New Look)	25
<그림 10> 히피 패션(Hippie fashion)	26
<그림 11> Issey Miyake	26
<그림 12> Yohji Yamamoto	26
<그림 13> Kenzo	26
<그림 14> 일본의 미용문화	33
<그림 15> 2003, Imitation of Christ	34
<그림 16> 가스파르 유르키에비치 컬렉션	34
<그림 17> 세르즈루텐스	34
<그림 18> 세르즈루텐스	34
<그림 19> 2003, Miu miu	37
<그림 20> 2003, Blugirl	37
<그림 21> 2003, Miu miu	37
<그림 22> 2003, Miu miu	37
<그림 23> 남자 경극	41
<그림 24> 여자 경극	41

<그림 25> 경극(패왕별희)	41
<그림 26> 경극	41
<그림 27> 경극 메이크업을 응용한 현대 메이크업의 예1	44
<그림 28> 경극 메이크업을 응용한 현대 메이크업의 예2	44
<그림 29> 경극 메이크업을 응용한 현대 메이크업의 예3	44
<그림 30> 경극 메이크업을 응용한 현대 메이크업의 예4	44
<그림 31> 2003, Blumarine	47
<그림 32> 1999, Michiko Koshino	47
<그림 33> 2003, Zil Sander	47
<그림 34> 원) 2003, Gucci / Eigner	47
오) 2003, Blumarine	
<그림 35> 여자 가부끼	51
<그림 36> 남자 가부끼	51
<그림 37> 여자 가부끼(게이사)	51
<그림 38> 남자 가부끼	51
<그림 39> 가부끼 메이크업을 응용한 현대 메이크업의 예1	54
<그림 40> 가부끼 메이크업을 응용한 현대 메이크업의 예2	54
<그림 41> 가부끼 메이크업을 응용한 현대 메이크업의 예3	54
<그림 42> 가부끼 메이크업을 응용한 현대 메이크업의 예4	54
<그림 43> 2003, Jean Paul Gautier	57
<그림 44> 2002, Dries Van Noton	57
<그림 45> 2002, Dries Van Noton	57
<그림 46> 2002, Dries Van Noton	57
<그림 47> 인도 의상을 표현해 놓은 그림(사모드 궁전 소재)	61
<그림 48> 인도 미인의 초상	61
<그림 49> Henna Design	62
<그림 50> 손을 이용한 Henna	62

<그림 51> Henna Make-up	62
<그림 52> Bindies	62
<그림 53> 인도 메이크업과 빈디를 응용한 현대 메이크업의 예1	65
<그림 54> 인도 메이크업과 빈디를 응용한 현대 메이크업의 예2	65
<그림 55> 인도 메이크업과 빈디를 응용한 현대 메이크업의 예3	65
<그림 56> 인도 메이크업과 빈디를 응용한 현대 메이크업의 예4	65
<그림 57> 2003, Lee Young Hee	68
<그림 58> 2002, Lee Young Hee	68
<그림 59> 2001, Lee Young Hee	68
<그림 60> 2001, Lee Young Hee	68
<그림 61> 쌍영총 고분벽화	74
<그림 62> 하연부인상	74
<그림 63> 신윤복의 미인도	74
<그림 64> 박가분	74
<그림 65> 한복 메이크업	78
<그림 66> 한복 메이크업	78
<그림 67> 한국적인 응용메이크업의 예1	78
<그림 68> 한국적인 응용메이크업의 예2	78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랜 과거부터 동양과 서양을 경제적 사회적인 교류를 통하여 상호간의 맥을 이어오다가 근대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동서양 모두 광범위한 교류를 갖게 되었으며, 이에 패션은 한 시대, 사회, 문화의식을 표현하는 동시에 이를 내재하고 있는 문화적 통합체로써 동서양 문화교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20세기에 들어 민족주의의 등장으로 동양이 정치, 경제등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로 부상하게 되고, 포스트모더니즘과 같은 문화요인과 결합하면서 동양풍은 세계의 문화를 선도하는 하나의 조류인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이라는 문화사조로 자리잡게 되었다.

서양 문화에 동양적 요소가 영향을 끼치기 시작할 초기에 이러한 현상은 동양 스스로도 인식하기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동양이 자신의 문화에 대하여 긍지를 가지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이후, 세계적으로도 동양문화의 중요성과 우수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오리엔탈 스타일(Oriental Style)은 21세기 문화의 주된 흐름 중 하나의 조류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며 부상하고 있다.

동양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패션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20세기를 기점으로 하여 서구패션에서는 동양적 이미지가 다양성을 띄고 발전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20세기 패션에 나타나는 오리엔탈 스타일을 보면 이전의 단순한 동양풍 선호현상으로부터 벗어나 에스닉 스타일(Ethnic Style),¹⁾ 이그조틱 스타일

1) 유럽이외의 세계 여러나라 민속의상과 민족고유의 염색, 직물, 자수, 악세서리 등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패션

(Exotic Style)²⁾ 등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젠 스타일(Zen Style)³⁾과 오리엔탈 퓨전 스타일(Oriental Fusion Style)⁴⁾ 등으로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오리엔탈 스타일은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에스닉(Ethnic)이라는 커다란 범위에서 벗어나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인 절충주의적이고 미래주의적인 요소를 보이고 있다. 19세기말의 동양풍 선호현상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개념의 오리엔탈 스타일(Oriental Style)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서양문화에 기인한 패션이 서구를 중심으로 세계적 유행을 주도하여 왔으며, 이에 상대적으로 비주류로 인식되어져 왔던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은 20세기를 기점으로 새롭고 다양한 디자인의 영역으로 그 응용이 패션과 메이크업에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으로 볼 때 오리엔탈리즘이 현대 패션과 메이크업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는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오리엔탈리즘이 지역별 특성에 따라 어떤 형태로 발전하였는지 경향을 살펴봄으로써 현대 패션과 메이크업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이는 점점 복잡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현대 패션과 메이크업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세계 패션속에 한국적 오리엔탈리즘 진출을 통해 한국의 패션과 메이크업 산업발전과 경쟁력 함양의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2) 이국의 정취에 탐닉하는 경향

3) 선(善)을 의미하며 동양적인 절제된 선을 강조한 심플한 스타일

4) 동양적인 관점에서 서로 다른 사물, 생각이나 무리의 조화, 조합을 이루는 스타일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써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의 정의와 오리엔탈 스타일(Oriental Style), 현대 패션과 메이크업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의 분석, 그리고 지역에 따른 현대 패션과 메이크업의 오리엔탈리즘 고찰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패션사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은 20세기말과 21세기를 기준으로 시대적 범위를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오리엔탈리즘의 지역별 분석을 고찰함에 있어서는 현대 패션에서 오리엔탈리즘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중국, 일본, 인도, 한국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스타일과 현대에서 변화되어가고 있는 스타일들을 구분하여 패션과 메이크업의 표현경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일반적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의 형태를 취하였으며, 패션·메이크업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논문, 패션잡지, 단행본 등의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21세기 패션에 나타난 오리엔탈 스타일의 시대적 변천과 그 특성에 대해 논하였다.

연구범위는 동서양의 교류가 급속도로 활발해지고 있는 20세기 후반부와 21세기를 연구대상 시기로 선정하였으며, 세계적인 패션 컬렉션을 중심으로 패션잡지와 해외모드지, 전문서적, 디자이너 작품집 등에서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의 정의

오리엔탈리즘에 내포된 ‘오리엔트(orient)’는 라틴어 오리엔스(oriens)에서 파생된 단어로 그 자체가 ‘해 뜨는 곳’, ‘일출’, ‘동방’ 이라는 뜻으로 지중해 동쪽지역을 가리킨다.

이것은 로마인들이 이탈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하여 지중해의 동쪽을 지칭하여 부른 서구 중심적인 말로써 고대에는 그리스 지방을 의미하였으나,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원정 이후 인더스강까지 그 의미가 확대되었고, 근대 이후 이집트, 아라비아,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란 등지를 포함하는 지역을 가리켰으며, 현대에 와서는 그 범위가 더욱더 넓어져 인도와 중국, 한국, 일본까지를 포함하는 근동, 중동, 극동의 총칭으로 사용되고 있어⁵⁾ 오리엔트지역을 규정하는 범위는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해왔음을 알 수 있다.

오리엔트 지역은 지리적으로 세 대륙이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동서문명의 다리역할을 하였으며, 근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임과 동시에 풍부한 석유자원이 발견된 이래 정치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되었다.⁶⁾

또한 20세기 후반에 들어 비서구 지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오리엔트지역에 대한 관심도 극대화되어 문화와 예술뿐만 아니라 사상과 철학까지도 생활 전반에 도입되고 있다.

오리엔탈리즘은 1830년대 프랑스에서 처음 등장한 단어으로써 일반적으로 동양적 취미, 동양적 예술의 애호를 말한다.

5) 「브리태니커 세계 대백과 사전」, 한국 브리태니커, 1993, p.152

6) 「세계 대백과 사전」, 동서문화, 1999, p.1204

특히 근세 유럽에 있어서 19세기 낭만주의의 한 경향인 이국 취미를 대표하는 것으로 오리엔트, 즉 동방세계에 대한 동경을 표현의 동기 또는 제재로 삼은 것이다.

이러한 풍조는 18세기 경부터 유럽각지의 상류계급사이에 유행하면서 시노와저리(Chinoiserie : 중국취미), 튀르크리(Turquerie : 터키취미)라고 하여 미술이나 음악의 주제로 삼게 되었고, 특히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 알제리 합병 등이 있었던 19세기 초부터 그 정점에 달하였다.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은 전적으로 서양이 주어로 쓰인 문장에서 쓰여진 단어으로써 서양의 자의적인 해석과 섭취에 강하게 의존하여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즉 오리엔탈리즘은 서양의 의식, 학문, 식민지 개척지에서 발휘된 국력 등과 같은 일련의 총체적인 힘의 조합에 의해 틀이 잡힌 표상의 체계라 할 수 있다.⁷⁾

이러한 시각의 오리엔탈리즘은 Edward W. Said의 저서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는 동양과 서양이라는 차별적 이분법에 입각한 서구 중심적인 동양관으로써의 오리엔탈리즘과 그 의미 작용의 질서가 형성된 역사적 과정을 밝히고 현대사회에서 그것이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서구의 동양에 대한 표상(representation)에 관하여 강력한 비판을 제기했으며, 동양이라는 개념은 제국주의시기에 서구인들이 만들어 낸 ‘구성(construct)’으로써 이데올로기적인 허구에 불과한 것이라 말하고 있다.

즉 그것은 오래 전부터 서양의 동양지배의 프로젝트나 맞물려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표상체계라는 것이다.

오리엔탈리즘은 단지 동양학이나 동양취미가 아니며 동양에 대한 서양의 사고방식을 가리킨다고 하였으며, 나아가 ‘오리엔탈리즘이란 동양을 지

7) 전해정, 「동서양의 패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한국 패션비즈니스 학회지, Vol.1, No.3, 1997

배하고 재구성하기 위한 서양의 스타일'이라고 정의내렸다.

그러므로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이 지칭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제국주의시기에 형성된 서양의 동양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시각을 가리킨다.⁸⁾

오리엔탈리즘 속에는 '지배 대상으로서의 동양' 과 '상상적 이상향으로서의 동양' 이라는 모순이 동시에 존재한다.

'지배 대상으로서의 오리엔트' 는 서구유럽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곳일 뿐만 아니라 위대하고 쓸모 있는 오래된 식민지의 개념이고 '상상적 이상향으로서의 오리엔트' 는 동양에 대한 끊임없는 호기심으로써 '낭만화(romanticization)' 라고 할 수 있다.

동양을 먼 곳에 존재하는 환상적인 타자(他者)로 피상화함으로써 현실이 안고 있는 고민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하였고, 근대의 '세속화된 이성'에서 탈피하여 고상하고 성스러운 곳으로의 환상적 도약을 꿈꾼 것이다.

이 두시각에 의해 '서양적'이란 '합리적, 이성적, 논리적'인 것을 의미하고, '동양적'이란 '비합리적, 비이성적, 비논리적, 신비적'인 것을 의미하는 하나의 기호가 되었다.

즉 오리엔탈리즘이란 동양과 서양이라고 하는 상대적 위치에서 만들어진 존재론적이고 인식론적인 구별에 근거한 하나의 사고방식으로써 서구인들이 그들 중심의 시각에서 지역적·문화적으로 그들의 반대편에 존재하는 타자에 대하여 내린 정의이다.

일반적으로 동양적 취미나 동양적 정서 혹은 동양적 예술에 대한 애호로 정의 내릴 수 있으며, 지리적으로 터키 동쪽 지역의 국가나 민족이 가지는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적 요소를 문학, 음악, 미술, 건축, 복식 등 예술 전반의 표현 주제로 삼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오리엔탈리즘은 서양인이 동양을 단지 취미와 흥미만으로 또 지배하고 정복하는 대상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동양을 하나의

8) 이승환, 「오리엔탈리즘을 해부한다」, 전통과 현재, 1997, p.207

독립된 개체로 인식하고 동양의 가치관, 문화전반에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또 더 나아가 동양적인 사상과 정신을 연구하고 있다.

현대 사회가 동시대적, 동공간적인 글로벌 시대로써 다양하고 복잡한 문화가 서로 어우러져 복합적 다중문화가 나타나게 되면서 오리엔탈리즘에도 여러 사상 즉 전통주의적, 자연주의적, 절충주의적, 미래주의적인 개념이 혼재되어 있는 'New Orientalism'을 표방하게 되었다.

이는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의 개념이 과거와는 다른 성격으로 구분하여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오리엔탈 스타일(Oriental Style)

오리엔탈(Oriental)이란 ‘동방의, 동양문명의, 동양식의’라는 의미이며, 따라서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 사상이 나타나는 시각적 표현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스타일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오리엔탈 스타일(Oriental Style)은 크게는 에스닉 스타일(Ethnic Style)에 속하며 순수예술분야에서부터 대중예술 그리고 실생활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붐을 이루고 있다.

오리엔탈 스타일은 Ethnic Style 또는 Exotic Style 과 혼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들 개념과는 차별성을 보인다.

먼저 Ethnic의 사전적인 의미는 ‘민족의, 민속의’란 뜻으로 특정민족의 특정양식이나 스타일을 의미한다.

에스닉은 처음에는 다른 문화권에 대한 호기심과 다른 인종에 대한 매력을 탐구하는 서구인의 반향적인 스타일이었다.

그들은 다른 세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여 여러 나라의 민속의 상과 민족고유의 염색, 직물, 패턴, 자수, 액세서리 등에서 영감을 얻은 새롭고도 아름다운 스타일을 창조했다.

특히 종교적 의미가 가미된 토속적이며 소박함을 나타내는 스타일로 녹색, 파란색, 인디고 블루 등 자연적 색채와 천연소재를 사용하며, 동양 분위기의 간결한 선과 디테일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표현한다.

에스닉 디자인에 영감을 준 대표적인 것으로는 중근동의 종교의상, 잉카의 기하학적인 문양, 인도네시아의 바틱, 인도의 사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에스닉 이미지에는 오리엔탈 스타일(Oriental Style), 이그조틱(exotic), 트로피컬(tropical) 등의 스타일이 포함되며, 포크로어(folklore) 분위기를 포함하기도 한다.

이러한 에스닉 이미지는 최근 패션뿐만 아니라 인테리어나 요리 등에서

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에스닉(Ethnic)이 주로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의 민간 전통적 문화를 지칭하는데 반해 오리엔탈 스타일은 아시아지역의 고도로 양식화된 궁정 문화를 지칭할 때 주로 쓰인다.⁹⁾

한편 Exotic Style이란 '외국의, 이국풍의, 이국정서'라는 형용사로 낮설고 색다른 취미를 추구하는 스타일이다.

원래는 미술공예품, 복장 등의 양식과 분위기에 쓰이는 말이지만, 패션에서 보면 외국의 풍속이 반영된 의상이거나 옷맵시에 이국적인 무드가 살아 있을 때 또는 그런 경향을 추구하는 디자인 발상을 의미한다.

이그조틱은 과거에 대한 환상과 향수로써 민속의상의 특색과 스타일, 장식 등을 선호하는 노스탤직에서 비롯되었다.¹⁰⁾

이그조티시즘(exoticism)이란 이국의 정취에 탐닉하는 경향으로 이국정서, 이국정취를 의미한다.

그리스어의 엑소티코스(exotikos : 외국의, 외래의)에서 유래된 말이며, 현대의 프리미티비즘이나 고갱, 들라크루아의 회화, 생피에르, 샤트브리앙, 프로티, T고티에의 문학이 있다.

이러한 오리엔탈 스타일(Oriental Style)은 20세기 후반에 들어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동양의 선(禪)사상에 근거한 Zen Style과 동양적 요소와 서양적 요소를 융화하기 위한 퓨전 스타일이다.

특히 동양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는 Zen Style은 서구적인 합리주의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인간과 자연을 통합하는 새로운 세계로의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인간본성의 의지로부터 출발하여 인간의 생활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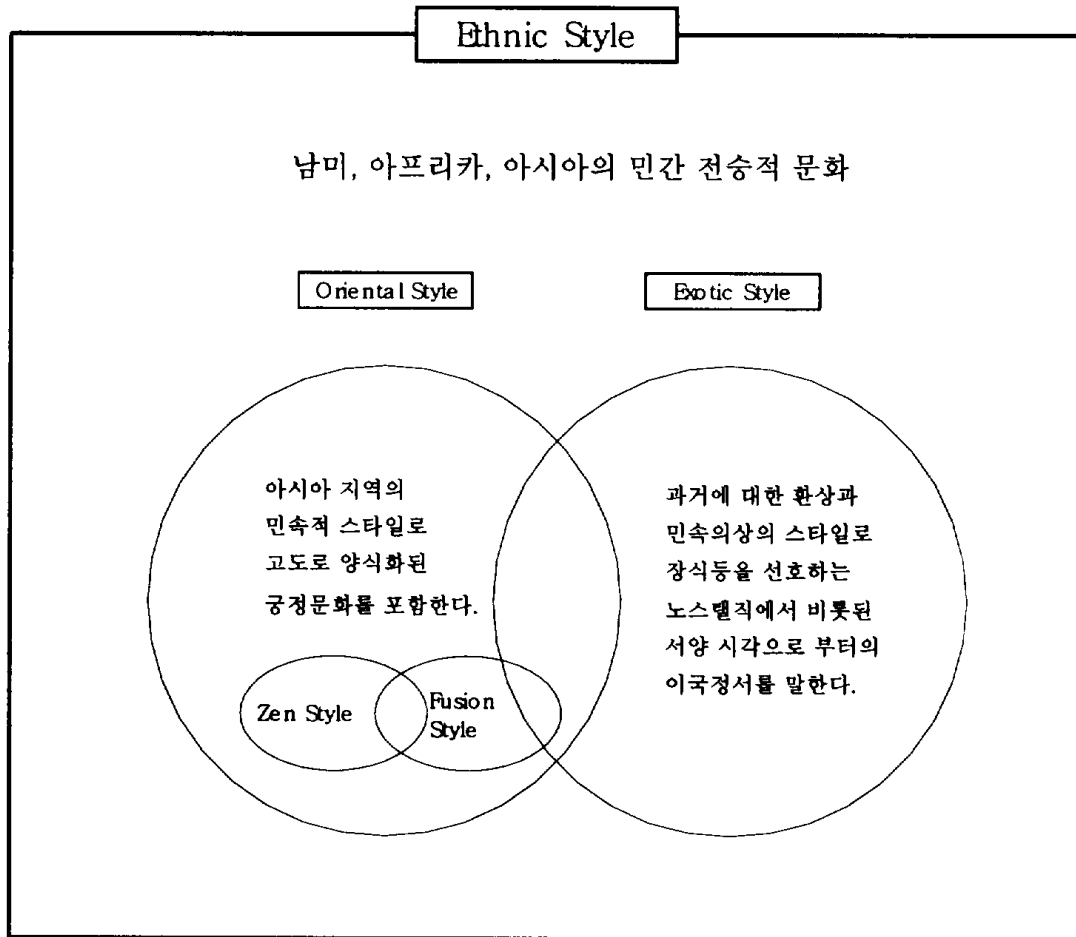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동양적인 스타일로 혼용되고 있는 Oriental Style, Ethnic

9) 양운정, 「현대의상에 표현된 자연주의에 관한 연구」, 홍대 석사학위논문, 1993, p.72

10) 「두산 세계대백과 En Cyber」, op.cit.

11) 「문학리뷰」, 1999

Style, Exotic Style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20세기 후반에 들어 오리엔탈 스타일(Oriental Style)은 다시 젠 스타일(Zen Style)과 퓨전 스타일(Fusion Style) 등으로 세분화됨을 알 수 있다.



<그림 1> 동양적 스타일의 관계

Ⅲ. Fashion과 Make-up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

1. 패션(Fashion)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

패션 디자인에서의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은 아시아와 그 주변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독특한 장식적 요소와 이미지, 색상, 소재, 기법, 문양 등의 요소들을 서양 패션디자인에 가미하여 이국적인 느낌과 매력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동양적 종교, 문화와 가치관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이기도 하다. 오리엔탈리즘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서구인의 시각으로 바라본 서구중심적 사고의 편견으로 시대상황과 밀접한 연관을 맺으면서 서양문화의 변화속에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화의 변화는 정치적 혼란이나 사회적 격변에 의하여 강요될 경우 더 빨라지고 분명해진다.

그 예로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원정기라던가 십자군 전쟁 등은 서양복식 문화에 동양복식 문화의 전파를 촉진시킨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서양패션디자인에 있어 오리엔탈리즘의 도입배경과 특징적인 요소들을 동서 문화의 교류로 인한 영향에 중점을 두고, 본 논문에서는 패션디자인사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을 20세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1) 20세기 이전

기원전 4세기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원정을 하여 동양의 비단을 처음으로 접한 이후 기원전 2세기경부터 개발된 실크로드를 통해 인도의 보석·진주·면과 중국의 실크가 전래되면서 이후에 본격적으로 행해지는 동방과 서방의 문화교류에 전초적 역할을 하였다.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인 비잔틴 제국은 그리스적 요소를 토대로 해서 그리스도교적 요소와 동양의 문화를 융합한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였고, 페르시아의 화려한 색채감과 중국의 견직물이 혼합·발달된 패션디자인에서도 그 특징적인 요소가 나타난다.

초기 비잔틴에서는 동방에서 수입한 두꺼운 실크를 풀어 따뜻한 기후에 맞게 다시 얇게 짜서 입었고 경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울과 함께 교직하여 사용하였다. 그 후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6세기에 콘스탄티노플에 황실 전용 견직물제조공장을 세우게 되면서 비잔틴 제국에서의 견직물 제직은 급속하게 발전하였고 후에 문화가 궁전을 중심으로 번영하게 되면서 9세기부터 12세기 전반에 걸쳐서는 견직물의 황금시대를 이루었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실크로 인접한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은 브로케이트(brocade)와 디마스크(damask)가 있다.

1096년부터 1272년까지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이슬람교도로부터 탈환하기 위해 시작한 십자군전쟁은 서양과 동양의 본격적인 접촉을 갖게 하였고, 이로 인해 서양의 중세 패션디자인에 많은 영향을 주어 도시가 상공업의 중심지로 번영하게 되었으며 직물공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시기에 모슬린(mousseline), 새틴, 벨벳등과 같은 동양의 견직물과 면직물이 진보된 직조기술과 함께 수입되었다. 특히 견직물은 동양의 이국적인 모티브를 나타내는 중요한 도구로서 타섬유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특이한 광택과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왕족과 귀족들의 의상으로 널리 이용되었다.

로마네스크 시대는 십자군 전쟁 초기로서 동양적 요소가 융합된 독특한 패션스타일을 형성했는데, 대표적 남녀의복이었던 블리오(bliaud)<그림 2>에서 나타나는 목, 손목, 옷단의 선 장식과 끈이나 금, 은, 색실 등으로 모양을 누비어 보석으로 장식을 하는 조끼 스타일의 코르사주(corsage)<그림 3> 또한 동양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신발에 있어서도 동양과의 접촉이 빈번해지자 11세기 말경부터 비잔틴의 영향으로 앞이 뾰족한 구두

가 유행하게 되었다.

13~14세기에는 십자군이 동양에서 많은 아름다운 사원들을 보고, 숭배와 상징으로 높이 세운 건축에 대한 열망을 안고 돌아와 전 시대의 건축과는 다른 고딕 성당을 세우게 된다. 건축에 수반해 여러 가지 공예품이나 장신구에까지 예각적(銳角的)인 감각과 첨두적(尖頭的) 외관을 적용한 고딕 양식이 형성되어지는데 이러한 감각은 패션디자인에도 영향을 미쳐 가느다란 동체, 아름다운 곡선을 가진 허리, 뽕족한 모자 그리고 뽕족한 구두와 같은 실루엣으로 인체의 아름다움을 돋보이도록 하는 경향으로 표현되어졌다.

이때 동양의 앞트임 의복이 도입되면서 앞을 여미는 기능과 장식의 기능으로 단추가 사용되어졌고 14세기 말 넓고 풍성한 스커트와 거대하게 넓은 소매의 스타일이 많은 양의 직물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유행하게 되었던 것은 무역의 발달과 동양으로부터 직조기술 도입으로 발달하게 된 직물산업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의복을 세로 선으로 반을 갈라서 대조되는 색으로 장식하는 파티칼라(parti-color)의 유행 또한 동양으로부터 염료의 수입이 용이하였기 때문에 의복의 가장자리를 모피나 자수, 대비되는 색의 실크 직물로 장식하는 것과 자수의 발달, 아플리케의 도입 등도 동양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던 무역활동이 비잔틴 제국의 몰락으로 인해 대양무역으로 전개·확장됨으로써 자본주의 사상과 인본주의 사상이 대두되어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패션디자인에 있어서도 인간 자신의 표현을 위해 과장하고 확대하는 의상이 크게 유행하였다. 또한 16세기 스페인을 선두로 각국이 식민지를 개척함으로써 식민지로부터 직물, 염료 등의 물품들이 들어와 복식의 재료로 이용되었는데 특히 아시아에서 수입한 염료는 유럽의 염료개발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 시대 남성복은 14세기의 것보다 상체가 꼭 맞는 것이 유행하게 되어

앞을 단단하게 여밀 필요가 있게 되었고 이때 새로운 수단으로 단추를 애용하게 되었다. 이 앞트임 형식의 카프탄 스타일(Caftan Style)과 단추의 사용은 동양, 특히 터키에서 그 디자인을 본 따온 것이며¹²⁾ 여성복에 있어서도 코트(coat)에 앞에 트인 형식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7세기 유럽 각국은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아시아로의 진출이 활발해져 중국식 가운, 일본과 중국에서 온 화려한 조끼, 인도의 세부장식 등이 소개되었다. 그리고 동서 여행이 빈번해지면서 외국 취미를 즐기게 되어 인도, 중국풍을 모방한 직물들을 생산하였다.

특히 인도에서 인디엔느(Indiennes)라는 문양과 색채가 동양적인 목면에 날염한 직물이 전래되었는데 이 인디엔느의 생산을 위해 프랑스 곳곳에 날염공장이 세워지고 기술이 진전되었으나 주로 귀족들의 의상에만 사용되었고 그 사치성향으로 인해 금령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에 걸쳐 유럽에서는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이 절정에 달해 중국 극동풍의 문양, 품물들을 가구나 도자기, 직물, 의상 등에 등장시켰는데 시느와즈리(Chinoiserie, 중국취미)·튀르크리(Turquie, 터키취미)라 불리면서 유행하였다. 특히 로코코시대에 남자 머리에서 보여지는 땡는 머리 형태의 피그테일(pigtail)은 통구스족이나 만주인에게서 유럽으로 전파되어 일반인에게까지 보급되었다.

19세기 영국에서는 동양 복식이 일상적으로 입혀지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선포되어 터키풍의 복식이 많이 입혀졌다. 이는 당시 남성들이 밝은 색상과 자수된 조끼를 많이 입었었는데 터키 복식이 그와 형태가 비슷하여 쉽게 받아 들여졌고 구성이나 형태가 흥미를 끌었기 때문이었다.

이 시기에 미국의 Amelia Bloomer(1818~1894년)는 새로운 여자 의상인 오리엔탈리즘의 바지를 1851년에 발표하여 주목을 끌었다. 그것은 아라비아인들이 착용한 풍성한 긴 바지의 단을 오므린 것으로 그녀의 이름을 따 블루우머(bloomer)<그림 4>라 불렸으며 짧은 스커트 밑에서 보이

12) 정홍숙, op.cit., 1997, p.92

게 입었다.

1840년경에는 뷔르누(burnous)<그림 5>라는 아라비아식의 외투가 유행하였는데 후드가 달린 망토형의 외투로써 태슬이 달리고 가장자리를 자수로 장식한 것으로 루이 필립 시대에 프랑스와 알제리아의 전쟁 중에 그 지방에서 도입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뷔르누는 1850~1860년대까지 유행하였고 그 후에도 외출복의 대용으로써 계속 사용되었다.



<그림 2> 블리오(Bliaud)¹³⁾



<그림 3> 코르사주(Corsage)¹⁴⁾



<그림 4> 블루우머(Bloomer)¹⁵⁾



<그림 5> 뷔르누(Burnous)¹⁶⁾

13) 정홍숙, 「서양복식 문화사」, 1997

14) 정홍숙, 「서양복식 문화사」, 1997

2) 20세기 이후

20세기 이후의 복식은 시대적 배경·예술사조 등의 상호영향에 의해서 특징적인 패션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패션은 20세기를 대표하는 문화현상인 전반기의 모더니즘과 후반기의 포스트모더니즘과 관련되어 크게 나눌 수 있다. 특히 20세기 후반의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는 하이 패션(high fashion)과 매스 패션(mass fashion)이 공존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하이 패션과 매스 패션의 기준이 허물어지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이며, 1980년대부터는 포스트모더니즘 적인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인 영향에 따라 20세기 이후의 패션 디자인사를 크게 세 시기로 분류하면 첫 번째 시기는 20세기가 시작되어 두 번의 전쟁을 겪는 동안 오리엔탈 스타일이 서구 패션 디자인에 도입되는 시기이고, 두 번째 시기는 전쟁 후 냉전(冷戰, Cold War)이라는 국제적 긴장의 상태에 놓이게 되지만,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며 평화로의 노력을 하게 되는 발전의 시기이며, 세 번째 시기는 다원화 시대를 맞이하여 생활 전반의 모든 개념을 재정립하게 되는 성숙의 시기로 분류하고 각각의 시기를 그 특성에 따라 도입기, 발전기, 성숙기로 명명하였다.¹⁷⁾

이상과 같이 분류된 시기별로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에 대하여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도입기(1900~1945년)

다양한 동양문화의 유입 속에서 새롭게 시작된 20세기는 사회의 변화와 발달을 패션에 반영하여 성장하게 된다.

중국풍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영국과 미국의 중국에 대한 개방정책으

15) 정홍숙, 「서양복식 문화사」, 1997

16) 정홍숙, 「서양복식 문화사」, 1997

17) 허정문,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오리엔탈 스타일에 관한 연구」, 카톨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25

로 서양에 널리 전파되었고, 1856년 이후 일본은 표현주의 화가와 아르누보(Art Nouveau)를 통해 패션 스타일이 서구에 많이 알려졌는데, 여성들은 그들의 티 가운(Tea-gown)으로 일본의 이국적 꽃이 섬세하게 수놓아진 실크 기모노를 입었으며 1905년 노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일본에 대한 흥미가 고조되기 시작하여 일본 고유복식과 화려한 색채 및 실루엣이 패션디자인에 대두되었다. 1906년대는 Poiret의 'Confucius(공자)'라 칭한 기모노 코트가 소개되었으며, 1908년경에는 중국의 만다린 소매(Mandarin sleeves)의 실크 누비 자켓이 유행하였다.¹⁸⁾ 1909년에는 Diaghlev가 이끄는 러시아 발레단이 복식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그 중 디자이너 Leon Bakst는 무대장치와 의상들에 오렌지색이나 감청색, 초록색, 노랑색, 담홍색, 질푸른 하늘색 등을 사용하였고, 의상에서 금박이나 금속 장식을 군데군데 끼워 넣어 선명한 색조를 구사하였다. 이러한 원색 계열과 화려한 이국주의 색조는 모든 예술 분야, 특히 의상계에 큰 영향을 주었고, 아르누보의 뒤를 이은 1920년대의 아르데코(Art Deco, 1920~1930년)에도 큰 영향을 주었는데, 아르데코가 취하고 있는 원색은 미술의 표현양식인 야수주의와 러시아 발레로 확산된 오리엔탈리즘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Bakst의 작품에 영감을 받은 뽀 뽀와레(Paul Poiret, 1878~1944년)와 루실(Lucille)은 러시아 발레단의 강렬한 색조와 고대 중국의 밝은 색채에 감명을 받아 뛰어난 색채 감각을 가지고 20세기 초기 패션에 이국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을 선보임으로써 전 유럽에 이국취미와 호화취미를 유행시키는 데에 커다란 역할을 했다.¹⁹⁾ 뽀와레가 1911년 이후 기모노 소매의 코트와 '아라비안 나이트(The Arabian Night)'를 재현시킨 듯한 터번과 하렘팬츠(Harem Pants)<그림 6>와 호블스커트(Hobble skirt), 미나레 튜닉스타일(Minaret Tunic style), 자수,

18) 김윤희, op.cit., 1992, p.21~27

19) 채금석, op.cit., 1995, p.273

브로케이드(Brocade), 타셀(Tassel)등을 발효하면서 현대패션에 Oriental Style이 접목되기 시작하였다.

Poiret와 Lanvin은 20세기 초기의 유행을 풍부한 드레이퍼리에서 아주 단순하고 기하학적인 장식으로 바뀌는데 큰 역할을 함으로써 패션계는 선명한 색채와 구슬장식, 화려한 문양의 오리엔탈리즘의 식물들을 선호하게 되었고, 화려한 색채의 혁명에 의해 파리의 염직계는 풍부한 색과 형, 화려한 문양에 의해 모드의 황금시대를 맞이하였다. 이것은 '현대'로의 진입을 의미하였는데, 이 시기에는 목면이나 견과 같은 새로운 이국풍의 직물들이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 되었으며, 문양도 오리엔탈리즘의 아르누보 취향의 동·식물 모티브를 따라 양귀비, 붓꽃, 수련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이후 1917년에는 러시아 혁명의 결과가 패션에 영향을 미쳐 러시아 토착의 민속의상이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1920년대는 전쟁 후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되고 경제적으로 독립되면서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시기로, 영화산업의 번창과 재즈의 유행이 당시패션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이에 따라 영화감상은 대중에게 가장 인기 있는 오락이었으며, 젊은 여성들은 영화배우와 같은 스타일을 모방하려 하였다.

이 시기에는 전체적으로 날씬한 형태로써 부피감 있는 기모노형의 오버버코트(Over Coat)<그림 7>와 몸을 감싸는 자수 장식의 중국 쇼울, 버누스 등이 유행하였고 핸드백, 신발, 장신구 등에 오리엔탈리즘 디테일이 더욱 유행하였고 핸드백, 신발, 장신구 등에 오리엔탈리즘 디테일이 더욱 많아졌다. 파자마가 여성들이 이브닝웨어와 비치웨어로 유행되었으며 헐렁한 상의와 함께 입는 다양한 형태의 바지는 중국풍과 인도풍, 여성과 남성의 혼합형태로 이브닝웨어와 데이웨어로 입혀졌다. 이후 '하렘(harem)', '조드퍼(jodhpur)'라 불리는 바지가 나왔고 그 형태에 변화가 많아졌다. 중국 복식이 수입되어 여성들은 '쿨리(coolie : 중국의 인부)' 블라우스와 자켓을 입었다.²⁰⁾

1922년 투탄 카멘 묘의 발굴은 아르데코에 이집트적인 요소를 가미시켜 이집트식 장식띠, 파라오 상징 문양, 연꽃 무늬 자수를 이집션 트레스 모드에 사용하였고 1923년에는 다양한 민족적, 역사적 영향을 받았으며, 중국, 인도풍의 의상이 명백히 나타나면서 Premet, Jenny 그리고 Drecol은 인도-중국풍 모드를 발표하였다. 1924년은 'Soviet Season'이라 일컬어 졌는데 Chanel은 러시아 자수품, Moujik(러시아 농민의)튜닉, 낮게 걸리는 벨트와 아주 좋은 털을 의상에 이용한 컬렉션을 보여주었고 1925년에는 Agnes에 의해 민속풍 터번이 디자인되었으며, 동양식의 스카프, 긴이어링, 원시적인 보석, 노예식의 팔찌 등이 유행하였다. 1927년에는 Patou가 흑백의 일본 문양의 점퍼슈트를 내놓았다.

1931년에는 파리의 '식민지 박람회'를 계기로 태평양이나 극동, 북아프리카 등의 이국적인 민속풍과 유럽의 여러 민속풍의 모드가 대량으로 소개되었다. 1930년대의 디자이너 스키퍼렐리(Schiaparelli)는 기능적인 의상을 제작하였는데, 동양의 영향을 받은 단순한 직선미와 강렬한 색채대비를 추구하는 아르데코(Are Deco)적 특성에 부합하여 이 시기 패션디자이너에 크게 기여하였다.²⁰⁾

1934년 오프꾸뛰르에서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이 눈에 띄었는데, 일본·중국의 황실과 농부의 복식에서 영감을 얻어 동양적인 꽃무늬와 대나무 단추·화사한 색의 튜닉 등이 발표되었다. 또한 Malyneux와 Mainbocher는 동양의 길고 단순하여 우아한 선을 의복에 옮겨서 새쉬, 트임이 있는 치마, 기모노, 사리를 내놓았다. 1936년에는 중국의 만다린 코우트(Mandarine coat)와 실크 자켓이 유행했으며, 특징적인 유행으로 남성용의 터어키 패즈(fez)가 있었으나 모더니즘의 전성기였던 이 시기에는 장식적인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이 이전만큼 많이 나오지 않았다.

20) 김윤희, op.cit., 1992, p.21~27

21) 박은주,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에 관한 연구」, 계명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9~12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스커트 길이는 짧아지고 어깨가 작아진 밀리터리 룩(Military look)<그림 8>이 전쟁기간동안 유행하였고 전쟁(1939~1945년)중에는 추위를 이기기 위해 인디언 스타일을 애용하였으며, 물자절약을 위한 디자인으로 중국복식의 영향을 받아 좁은 바지 같은 직선 형태의 디자인이 등장하였다.

(2) 발전기(1945~1979년)

패션의 공백기인 전쟁이 끝나고 1947년 크리스찬 디올이 발표한 뉴룩(New look)<그림 9>은 일년 이내에 전 세계에서 받아들여졌다. 당시 디올의 뉴룩에 맞추어 자연 밑집으로 만든 쿨리햇(Coolie Hat)이 유행하였는데 이것은 중국 노동자들이 쓰던 원추 형태의 모자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1951년 디올과 발렌시아가 두 디자이너의 하우스에서는 중국 스타일을 선보였는데, 만다린 칼라, 직선적인 옷단끼리 마주 닿은 자켓(Straighr Edgeto- edge jacket), 쿨리햇이 그것이다. 직물 디자이너들도 동양적 모티프를 계속 사용하였으며, 1959년에도 발렌시아가는 기모노 코우트를 발표하였다.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쿠바(Cuba)위기 등으로 미국과 소련의 전후 냉전이 심화되었고, 중국에서는 문화혁명이 전개되었다. 베트남전은 미국내에 사회 혼란을 가져와 청년 세대의 반전 운동(Anti-War)으로 신좌파(新左派)와 히피(Hippie, Hippy)를 탄생시켰다. 히피들은 서구문명에 대한 반발로 동양의 사상과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에스닉풍의 프린트,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의 영향을 받은 구슬 목걸이, 반지 등의 장신구와 독특한 화장 등으로 그들의 이상을 표출시켰다.²²⁾

이러한 히피의 복식<그림 10>이 패션디자인에 영향을 주어 1958년 이후, 패션계의 관심은 과거와 동양 문화로 옮겨졌으며, 히피가 입었던 네루

22) 이주현, op.cit., 1999, p.15~19

자켓은 슈트 자켓의 대용으로 호응을 받아 1966년과 1968년 Vogue지에서 미국적인 아이디어로써 나타나게 되었다. 1964년 발렌시아가는 인도 무녀의 전통의상에서 이미지를 차용하여 허리를 노출시키고 마름모꼴로 감싼 판타롱을 소개하였고, 1965년에는 인도와 중국에서 영감을 얻은 오리엔탈 룩이 파리에서 유행하였으며,²³⁾ 1967년 Yves Saint Laurent은 히피 운동에 자극을 받아 비서구의 문화를 도입하는데 만족치 않고 첨가, 변형, 개작시켜서 독창성을 발휘하여 이국풍의 유연하고 편한 의복을 내놓았다.

1968년 루디건릭(Rude Gerneich)은 실크로 만든 기모노풍의 드레스에 비닐로 된 타이를 조화시킴으로써 서양패션에 동양이미지의 차용은 물론 소재의 사용에 있어서도 전혀 이질적인 비합리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모델의 메이크업 역시 여성의 전통미를 파괴한 화장법을 사용하여, 합리성과 비합리성, 서양과 동양의 양극성, 전통미와 파괴를 나타내었다.

1970년대 이후, 미국과 중공의 무역 재기와 월남전 종결 그리고 일본의 경제적 진출이라는 세계 정세의 변화는 패션계에도 영향을 주어 Kenzo Takada와 Issey Miyake 등을 중심으로 한 일본 디자이너들이 파리로 진출하였고, 중국과 일본 등의 영향에 의해 오리엔탈리즘이 유행하였다.

Kenzo는 1970년 가을 컬렉션에서 동양에서 영감을 얻은 비구조적인 의복을 디자인하여 호응을 받았고, 1971년의 이브닝 웨어에서는 이국적인 소재와 조화된 단순한 선으로 오리엔탈리즘의 영향을 나타내었으며, 1973년에는 전통적인 일본 복식에 기반을 둔 무형(無形, Sizeless)의 의복을 선보였다. 1974년과 1975년에는 입는 방식을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레이어드룩(Layered look)과 오리엔탈 룩(Oriental look)으로써 중국풍의 마오-아-라 모드(Mao-a-la-mode)를 발표하였는데,²⁴⁾ 이는 극동과 중동에서 영감을 얻어 장삼(cheongsam), 기모노, 누비자켓 등 일본과 중국 스

23) 김윤희, op.cit., 1992, p.21~27

24) 윤혜영, 「20세기 서구 여성복에 나타난 신의 변천에 관한 연구」, 한양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p.37

타일의 가는 실루엣으로 강조되어 나타나기도 했다.

1976년 서양이 OPEC국가의 정치, 경제적인 움직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당시, 중동의 전통 복식이 재해석되어 하렘 바지, 튜닉, 터번 등이 발표되었으며, 레이어링(Layering, 겹쳐입기)이 이러한 민속적인 스타일의 특징이 되었다. 또한 1970년에 민속복식조의 장식적인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을 나타내었던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ent)은 1976년과 1977년에 러시아풍, 코삭크풍, 짚시풍, 인도풍, 빅토리아풍을 혼합한 환타지룩을 발표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3) 성숙기(1980~1990년)

성숙기에 해당되는 이 시기는 다원화 시대를 맞이하여 생활 전반의 모든 개념이 재정립되는 시기로서 정치, 경제적으로는 제3세계의 세력이 급성장하게 되면서 서구에 의해 주도되어졌던 세계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세기말적인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안정을 추구하려는 대립되는 인간 내면의 의지가 비서구적인 문화와 환경을 동경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시기이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이국주의적인 요소가 도입되었는데,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대표되는 문화예술 양식에 의해 토속성과 원시적 특성이 강조되었고, 따라서 새롭게 아시아권의 문화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과학문명의 급진적인 발달로 인한 지구의 생태학적 위기를 인식함 됨으로써 인위적이며 도식적인 서양패션디자인의 형태에서 벗어나 자연적인 흐름과 정신적 운명론을 바탕으로 한 오리엔탈리즘 패션디자인의 형태미를 추구하게 되면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동양적인 요소가 더욱 부각되는 것은 1980년대 이후로 놀랍게 성장한 일본 디자이너의 활약과 1985년 동경 컬렉션 개최와 더불어 세계를 향해 문호를 개방한 중국, 그리고 88올림픽으로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켰던 한국 등의 요인으

로 볼 수 있다.

특히 일본은 국제사회에 경제대국으로 떠오르면서 일본풍의 의상과 문화가 패션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Issey Miyake<그림 11>, Yohji Yamamoto<그림 12>, Kawakubo Rei, Taketa Kenzo<그림 13> 등의 디자이너들에 의해 'Japanese Look'이 전 세계로 확산되었으며, 이들은 서구 패션에 대한 고정 관념을 깨뜨리는 검은색 중심의 휘감기, 두르기, 매기, 걸치기 등 다양한 레이어드 룩(Layered Look)과 빅 룩(Big Look)을 선보였다.²⁵⁾ 그들은 전통적인 기모노와 동양의 노동복을 가지고 의복제작을 했고 새롭고 신기한 소재와 정해진 사이즈가 없는 의복으로 서양 여성들을 매혹시켰다.

이렇게 동양의 디자이너들에 의한 패션디자인이 독특한 개성과 매력으로 인기를 끌게 되자 샤넬, 크리스찬 디올, 지방시 등이 연이어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의 색채를 띤 작품을 발표하였으며, 또한 지안 프랑코 페레(Gisan Franc대 Ferre)와 지아니 베르사체(Gianni versace)등이 컬러와 소재, 장식, 문양 등에 있어서 완전한 오리엔탈리즘 패션디자인을 연출해내면서 더욱 부각되게 되었다. 이들의 작품은 서구인이 다시 해석해낸 동양의 미(美)라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있다.

민속의상의 염색, 직물, 자수 등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민속풍 의상은 1980년 후반기부터 각 문화권마다 다른 민속의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현대 패션의 테마로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화려한 자카드 원단, 동양 모티브 문양, 정열적 색상, 드레이프를 강조한 두건과 모자, 몸을 휘감는 랩(Wrap), 루즈룩(Loost Look) 등으로 표현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개발도상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동남 아시아 지역으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세기말적인 불안감으로 인해 동양의 종교적 세계와 연관되면서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은 종교적인 정신세계를 주축으로 한 오방색채와 중세적인 모티브, 그리고 토속적인 디자인이

25) 이주현, op.cit., 1999, p.15~19

함께 융합된 환상적이며 공상적인 분위기가 두드러졌는데 패션디자인에 있어서 이러한 이질적인 동양의 종교적인 정신 세계에서 그 주체를 찾고 있는 현상은 신비주의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는 1911년경 기독교가 아닌 새로운 종교성, 정신성을 지향하는 작품을 제작하여 동양의 종교적 정신세계의 도입을 시도하였던 표현주의의 예술과 그 미학적인 연결고리가 이어져 있다.

1993년과 1994년에는 인간본연과 자연스러움, 탈문명을 추구하는 자연주의의 영향을 받아 장식적으로 귀족적 이미지보다는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면이 강조되어 색상도 강렬한 원색보다는 이를 한층 퇴색시킨 저(低)명도의 색상으로 차분하고 토속적인 오리엔탈리즘이 나타났다.

서양 디자이너들의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동경은 해마다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에서 등장하였는데 1996년 돌체 앤 가바나(Dolce & Gabbana)의 대나무 프린트의 새틴의상의 뒤를 이어 97년에는 가부끼 화장을 하고 기모노를 입은 모델이 'Vogue'지의 표지를 장식하였으며, 갈리아노(John Galliano)와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의 컬렉션에서 오리엔탈리즘이 모티브가 되었다.²⁶⁾ 또한 1998년에는 Dior가 Poiret의 오리엔탈리즘 디자인을 재해석하여 디자인하기도 하였다.

그 후 패션디자인은 새 시대로의 도약을 예고하며 세기말의 분위기를 표현하게 되면서 퓨전 스타일(Fusion Style)이 도입되고 정신적, 자연적 스타일, 미래주의적 첨단 스타일, 자수를 이용한 장식적 스타일로 대표되는 오리엔탈리즘의 패션 디자인이 직접적으로 반영되었다.

26) 「Vogue Korea」, (주)두산동아, 1997, p.146



<그림 6> 하렘팬츠(Harem Pants) 27) <그림 7> 기모노코트(Kimono Coat)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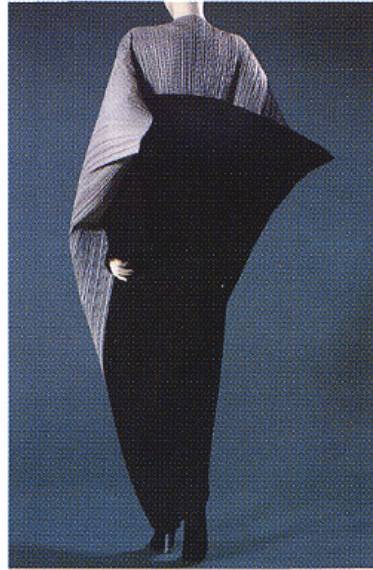


<그림 8> 밀리터리 룩(Military Look)29) <그림 9> 뉴 룩(New Look)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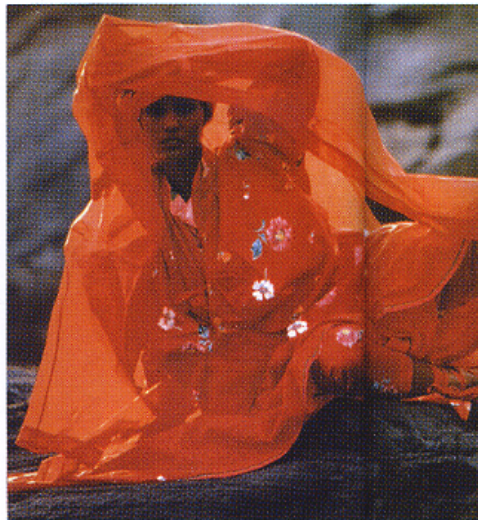
27) 정홍숙, 「서양복식 문화사」, 1997

28) 정홍숙, 「서양복식 문화사」, 1997

29) 정홍숙, 「서양복식 문화사」, 1997



<그림 10> 히피 패션(Hippie fashion)³¹⁾ <그림 11> Issey Miyake³²⁾



<그림 12> Yohji Yamamoto³³⁾

<그림 13> Kenzo³⁴⁾

30) 정홍숙, 「서양복식 문화사」, 1997

31) 정홍숙, 「서양복식 문화사」, 1997

32) Issey Miyake

33) 정홍숙, 「서양복식 문화사」, 1997

34) Kenzo

2. 메이크업(Make-up)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

메이크업의 기원은 인간역사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최초의 화장품 사용은 150만년전 호모 에렉투스(최초의 직립보행)가 열대지방에서 북방으로 이주했을 때 이루어졌다. 그후 화장은 기능적 목적에서 상징적 응용으로 빠르게 발전되었다. 즉 화장은 계급의 표시로서 종교적 의식으로서 장식품으로 그리고 성발달의 신호로서 이용되었다. 이들 초기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에게 아름다움은 자연에 대한 부정이었으며 색과 표현방식을 통해서 실제 얼굴을 감추고자 하였다.

클레오파트라 시대의 이집트인들은 화장먹을 사용하여 독충감염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태양광선을 차단시켰다. 그리스인들은 속눈썹을 흑향으로 칠했고, 로마인들은 포도주로 뺨을 물들이고 얼굴과 팔을 초크로 칠했다. 엘리자베스 시대 사람들은 창백하게 보이려고 흰납을 사용했고 여왕 자신도 화장을 했으며 식민지로부터 약탈한 양홍(붉은 색소이름), 사프란(식물이름), 아라비아 고무같은 에센스를 사용하였다.

1770년 영국에서 화장품에 대한 반발이 확대되어 법에 만들어지고 19세기가 시작되면서 빅토리아시대 사람들은 깨끗한 피부관리를 위한 기초로서 비누를 사용하였다. 그들은 뺨을 양홍색으로 물들이고 얼굴은 에나멜로 광택을 냈으며 눈을 밝게 하려고 벨라도나를, 안색을 좋게 하려고 비소제를 사용해 얼굴을 아름답게 하였다.

동양에서 메이크업을 의미하는 케소(kesho)는 의식용, 연극용으로 얼굴과 손에 바른 색파우더를 뜻하였다. 12세기말 가마쿠라시대에는 눈썹뽑기와 화장(철, 사케, 녹차, 설탕 그리고 거미에서 만들어낸 염착제)이 당시 인기있던 화장 관습이었다.³⁵⁾

1908년에 모로코는 노골적으로 그들의 옹호자인 프랑스에 저항하였고 일본은 필리핀을 침략한 의도를 갖었으며, 콩고는 벨기에의 식민지가 되

35) Beauty & Health 연구회, 「메이크업&스타일 100년사」. 현문사, 2001, p.11

었다. 삼의 왕은 파리를 공식적으로 방문하였고, 황제 오토만은 마지막 정렬을 불살랐다.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은 의상에 반영되었고 서구열강은 식민지시대 하에서 이국정취에 심취되었다. 강렬한 동양풍의 신비로운 아름다움은 서양의 남성들에게 환상을 갖게 하였으며 젊은 알제리아, 베트남, 다른 아시아 처녀들의 그림엽서를 볼 수 있게 되었다.³⁶⁾

19세기 초 여성들의 메이크업 스타일은 연극에서 배운 것이었다. 이때의 무대조명은 가스등이었는데 메이크업 스타일은 매우 투박해서 튜브속에 든 검정펜슬, 이태리 크레용은 눈꺼풀에 선을 그리고 눈썹과 속눈썹을 어둡게 하는데 사용되었다. 그리고 조제된 초크와 카민(적색제)을 얼굴에 발랐다. 그러나 메이크업의 가장 정교한 표현은 이시기 유럽을 휩쓴 동양풍에 대한 열정과 더불어 이루어졌다. 러시아 발레 <천일야화>는 러시아의 호화로움과 문화를 표현했으며 화장품, 향, 무대장식에 곧 밝고 진한색을 유행시켰다. 광고조차도 동양풍 취향을 채택했고 메이크업 이름도 동양적이었다.

헤레나 루빈스타인은 자서전에서 “보라와 금빛의 조화가 측정할수 없이 나를 흥분시켰다. 발레 후 나는 살롱에 돌아가 흰 수단 커튼을 찢었다. 나는 그것을 전날밤 내가 사랑에 빠졌던 화려한 색깔로 바꾸게 하였다.”라고 회고하였다.

동양취향가들이 지지자들을 얻게 되자 이전의 무도회에서만 보여지던 형식적 화장이 이제 저녁모임이나 오후 티파티에서도 나타나게 되었다. 광범위한 미용문화를 기록했던 미국 <보그>지는 “터키와 코카서스 북서지방의 여자들은 눈을 그리는데 헤나(물감)를 사용했다. 아랍의 사막에서 여자들은 눈꺼풀 가장자리를 검정 파우더로 어둡게 했다. 그리고 눈이 커 보이도록 눈둘레에 선을 그렸다. 정말로 큰 검정 눈은 모든 동양여성 사이에서 미의 기준이었다.”고 1911년에 서술하고 있다.

36) Beauty & Health 연구회, 「메이크업&스타일 100년사」. 현문사, 2001, p.20

화장품 역사에 중요한 순간인 1차 세계대전 후 화장품을 현대생활의 필수적 요소로 굳건히 세운 국제적인 미용문화가 출현한다. 패션은 도처에 존재했고 극장, 영화, 문학, 미술에서 분리되어 있었다. 패션으로서의 메이크업은 자기표현과 요염함을 상징했다.

미국 태생 조세핀 베이커(Josephine Baker)와 그녀의 악명 높은 리뷰 네그레(Revue negre : 흑인 풍자시사주)가 1925년 파리에 도착했을 때, 메이크업은 아프리카적 영감을 얻게 되었다. 그녀의 파리입성은 동양주의의 종말을 알렸고 1920년대 중요한 영향을 주었던 아프리카예술이 유행하게 만들었다. 베이커 스타일은 1920년대의 전형적 스타일이었다.³⁷⁾

1937년과 1946년 사이의 기간은 2차 세계대전의 실상에 의해 특징지어졌다. 거의 10년 동안은 예술, 패션, 미에 있어서 발전이 억제되었다. 전시 동안 미에 대한 추구는 20세기 여성에 대한 역설을 나타내었다. 공장이나 병커, 런던의 중앙 관청, 어디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여성이 남성들과 나란히 일을 하는 동안은 남성들과의 동등함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전쟁으로 인해 화장품 포장재료의 부족 문제와 스타킹의 소멸로서 여성들은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애썼으며 1940년에는 1939년에 비해 오히려 화장품 판매가 7% 증가했다.

군전술가인 피터 로젠카(Peter Rodyenka)소령이 1943년 미국<보그>지 기사에서 “은폐와 정체성의 혼란을 제공하는 기능으로서 메이크업은 모든 군인들이 몰두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정의했듯이 메이크업은 하나의 무기로써 공격적이었다.

태평양 전역에서 일본군인들은 배경과 완벽하게 조화시키는 메이크업과 채색의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었다. 위장은 새로운 제품에 의해 2차 세계대전중 개량되었다. 초기 때부터 위장은 군에서 우선시 되었다. 서너개의 밀랍에 바탕을 둔 색을 얼굴에 자유롭게 칠하도록 되어있는 이러한 장비는 지상군에게 배포되었다. 위장크림(코만도 메이크업이라고 불리는 한

37) Beauty & Health 연구회, 「메이크업&스타일 100년사」. 현문사, 2001, p.44~45

상표)과 햇별에 그을림을 막아주는 립스틱 역시 전쟁터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많은 군대에서 메이크업과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은 군생활의 필수였다.

전쟁은 또한 화장품 산업의 국제적인 구조를 바꾸었다. 대부분의 유럽과 동양은 화장품 발전을 위한 기동력을 잃었다. 미국은 이 기간에 화장품 혁명가와 최후의 수출업자를 키웠고 1950년대까지 전쟁은 대규모 생산의 안정된 제조공법과 분배구조에 필요한 발전을 강화했다.

최면술에 걸린 듯한 1960년대의 용모는 과장된 표현으로 발전되었으며 시대의 혁명적인 원동력이 되었다. 1950년대의 '독특한 멋'의 관념은 1960년대에는 '영원한 젊음'으로 대체되었다.

파리스타일의 의상 디자이너인 앙드레 쿠레쥬는 능동적으로 패션쇼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의 디자인에 참여하였다. 그는 패션쇼에 동양모델을 기용하여 모델 각자의 독특함을 살리도록 더욱더 동양미를 강조하는 메이크업을 했다.

1970년대 베이비붐 세대들은 전통적 가치와 사회구조에 대한 불만은 베트남전쟁, 시민권리운동 또는 여성평등에 관련된 정치적 불안상태를 불러 일으켰다.³⁸⁾

오래된 것, 재상영, 부활 : 영화에서 그래픽으로, 그림에서 연극으로 과거의 회상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에는 대중경험이 지배적이었다.

아르누보, 아르데코, 40년대의 유선형, 50년대의 부기, 60년대의 슬릭, 70년대의 글램록등 모든 스타일과 장르들은 일본, 아프리카, 중동적 디자인의 영향을 받아 결합되어 진기함의 매력적 다원화, 즉 포스트모더니즘을 만들었다.

미용문화는 간과할 수 없는 경제성, 과학성, 사회적인 지위의 향상을 세계적으로 이끌어냈다. 일본과 극동지방은 부분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38) Beauty & Health 연구회, 「메이크업&스타일 100년사」. 현문사, 2001, p.153

1980년대는 패션과 미용의 풍부한 시장이 확장되는 시기였다. 일본과 이태리, 미국 디자이너들은 그들의 모임을 파리에서 가졌고, 일본의 영향은 지배적이었다. 이세이 미야게(Issey Miyake),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 레이 가와구보(Rei Kawakubo)와 같은 디자이너들이 세계적인 장을 장악했다.

동양적인 얼굴의 이미지는 Tyen의 중간 색조선택에 의해서 세계적으로 묘사되었으며, 피부가 홍조를 띄도록 거의 황갈색의 화운데이션과 눈부분의 이국적 매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검은색 아이라이너 그리고 둥글고 부드러운 입술을 나타내기 위해 흐린 립스틱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화장은 흰 피부에 붉은 입술과 붉은 연지를 바른 볼화장 즉 게이샤와 같은 동양 미인의 전통적 시각으로부터의 탈피였다.

1970년대에 너무나 엄격하게 제한되었던 민족성이 이제는 매우 개방되어서 국제적으로 변모하였다. 일본 디자이너들이 만든 옷을 흑인, 백인, 그리고 아시아 여성들이 모두 입었다.

1990년대의 다양한 국제적인 화장법은 잘 알려진 회사이미지를 원했다. 세르즈루텐스는 광고와 제품의 흐름을 조절하고 스타일과 조화시키기 위해 그는 1980년 시세이도사에 고용되었다. 루텐스는 일본적 취향에 영감을 준 유별난 미적 감각의 선구자였다.³⁹⁾ 그는 'Japan Beauty'의 극치를 시세이도 광고에서 보여 주고 있다<그림 17, 18>.

지난 10년 동안에 사실 메이크업에서의 새로운 기술적인 진보는 일본 사람들이 선두가 되었다. 일본의 화학자가 화장품에 대변혁을 야기시켰는데 시세이도사의 컴팩트 화운데이션을 젖거나 마른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그것의 조성은 한가지 중요한 성분과 이중 지질막을 갖는 색소, UV를 차단할 수 있는 공정, 그리고 수분이 있는 것을 가루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었다.

1997년 프라다, 발렌티노 컬렉션에서 청삼과 기모노를 모티브로 한 옷

39) Beauty & Health 연구회, 「메이크업&스타일 100년사」. 현문사, 2001, p.174

들이 등장하였으며 2003년 봄/여름 컬렉션에는 스포티하고 섹시한 오리엔탈룩인 청삼과 고글의 매치, 기모노 프린트의 섹시한 미니가 선보였다. 그리고 메이크업도 그 의상들에 어울리도록 내추럴하면서도 동양의 느낌을 살린 스타일로 표현되었다.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은 2002년 가을부터 2003년 컬렉션까지 고정으로 등장하고 있는 컨셉이다. 국내뿐 아니라 외국의 많은 잡지와 컬렉션을 보아도 백지장 같은 하얀 얼굴에 빨간 립스틱 그리고 중국풍 배경에 기모노에서 모티브를 얻은 의상을 입은 모델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크리스찬디올을 비롯해 셀린느, 프라다, 구찌, 블루마린 등 패션계의 스타급 브랜드들이 동양미학에 심취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메이크업 스타일도 오리엔탈 바람이 일어난 것은 당연지사이다.

인도와 지중해, 일본 스타일이 애용되었고 그 결과 스모키한 아이, 게이샤를 연상시키는 하얀 피부연출, 과감한 보디아트가 시도되었다. 인도의 빈디(Bindi)에서 착안한 보디아트는 파리의 디자이너 가스파르 유르키에비치(Gaspard Yurkievich)에 의해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그림 16>.

세계적인 메이크업 아티스트 톰 페슈가 참여한 DKNY는 최근 유럽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동양의 타이포그래피를 떠올리는 독특한 아이메이크업이 선보여 화제를 모았다. 에스닉한 이미지속에는 현실을 초월한 신비로움 동시에 열정적인 섹시함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2003년 봄/여름 컬렉션에서 중국이나 일본, 인도 등지를 캣워크에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것 같은 트렌드를 따라, 봄/여름에 선보이는 메이크업의 경향도 오리엔탈 무드를 표현하였다. 인도의 화려한 사리와 매치해야 할 듯한 펄감의 골드 컬러나 에스닉 무드의 오렌지와 핑크컬러, 가부끼화장을 응용한 듯한 창백한 피부표현과 강렬한 레드 립스틱등이 백스테이지에 등장하였다.

그뿐 아니라 코스메틱 제품에서도 ‘동양적인 아름다움’이 화두로 떠올랐다. 중국산 ‘화이트 티’를 주성분으로 한 오리진스의 ‘퍼펙트 월드’나 ‘사

케'로 만든 웰빙 브랜드 프레스의 '사케라인', 대나무모양을 닮은 젠조의 '뉴 젠조뿌르움즈' 향수들이 있다.

2002년 겨울 선보였던 안나수이의 새로운 '자개장' 패키지는 안나수이가 접에서의 한국의 선전을 기념해 에스티로더 본사에서 축구공모양의 기념 콤팩트 '2002 Korea'를 발매하는 등 한국이 '오리엔탈 붐'의 영감의 원천 한국에서 구입해간 전통 자개장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한 것이고, 월드으로 응용되고 있다.



<그림 14> 일본의 미용문화⁴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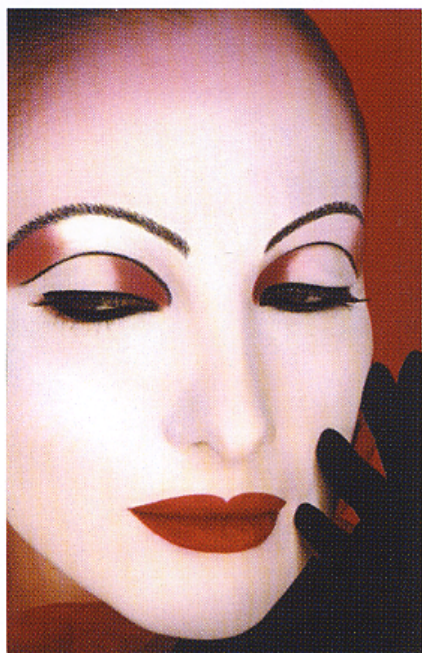
40) Beauty & Health 연구회, 메이크업 & 스타일 100년사, 현문사, 2001



<그림 15> 2003, Imitation of Christ⁴¹⁾



<그림 16> 가스파르 유르키에
비치 컬렉션⁴²⁾



<그림 17> 세르즈루텐스⁴³⁾



<그림 18> 세르즈루텐스⁴⁴⁾

41) BAZAAR, 2003년 2월호

42) BAZAAR, 2003년 2월호

43) SERGE LUTENS, Assouline, 1998

44) SERGE LUTENS, Assouline, 1998

IV. 지역특성별 오리엔탈리즘의 변화

1. 중국

1) 패션

중국은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으며 풍토적으로는 아한대에서 아열대에 걸쳐 있으며, 한족과 56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의복과 장신구 역시 많은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형태면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전통복식은 청조(淸朝)를 일으킨 만주족의 고유의상에 그 근원을 발견할 수 있는 치파오로 현대 패션에서 그 형태적 특징이 가장 많이 응용되고 있다. 치파오는 다야트를 넣어 체형의 곡선을 살린 원피스형 드레스로 보행시의 불편을 막기 위해 스커트 양 옆슬기를 터 주었고 목선에서 어깨, 겨드랑이로 트임이 있어 매듭단추로 장식을 곁하여 여며 주었으며 만다린 칼라를 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치파오는 많은 스타일의 변화를 걸친 후에 확립된 형으로 1911년 신해혁명으로 인해 여성의 지위 개혁이 되면서 움직임의 자유를 고려한 의복스타일로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와 같이 형성된 치파오는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생활 방식의 상징으로써 유행에 맞으면서도 중국인의 특성을 잘 묘사하는 의상으로써 현대 패션디자인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치파오 외에 1949년 공산주의 정권이 자리잡은 이래 중국 본토에서는 실용적이고 간소화된 모택동 팬츠와 재킷을 최근까지 노동복으로 착용하여 왔고, 머리에는 쿨리햇을 착용하였다. 이러한 노동복 이미지 또한 현대 패션에서 경쾌하고 발랄한 이미지로 전환되어 나타난다.

이상과 같은 전통 복식인 치파오의 특징적인 형태라 할 수 있는 타이트 실루엣과 매듭 단추, 사선 여임, 만다린 칼라, 긴 슬릿과 같은 세부장식

요소들이 주로 현대 패션에 있어 중국적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으며 오랜 역사와 함께 지켜져 온 조형물을 상징화한 디자인 형태와 노동복 이미지 또한 보여진다. 그러나 그 형태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생활 패턴에 따라 실용화, 기능화하여 나타나고 있다<그림 19, 20>.

직물은 ‘실크의 나라’라고 불리웠던 만큼 다양한 실크가 직조, 사용되어 그 복식의 화려함을 더 하였으며 근방의 한국, 일본은 물론 실크로드를 통하여 서방에까지 전해져 서구인들의 동양에 대한 환상을 고취시켰다. 이러한 실크 소재는 현대에 와서 ‘상통 실크(shantung silk)’의 사용이 붐을 이루었는데 중국 산둥 지방에서 생산되는 평직의 견직물로 수직실크라고도 불린다. 이 소재의 특징은 어딘가에 굵힌 듯한 자국이 불규칙하게 나있어 조금 거친 듯한 느낌을 풍기지만 이러한 점이 자연주의와 맞물려 소박하면서도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는 소재로 인기를 얻게 되었다.

색채에 있어서 중국인들은 붉은 색을 해운, 위엄, 결혼의 이미지로 받아들이고 금색 및 황색은 황제를 칭하는 색으로 귀하게 여겨 의복에 있어서도 붉은 색과 황색의 선호가 두드러져 현대 패션디자인에서도 중국풍의 디자인에 빈번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⁴⁵⁾

문양은 당대(當代)에 와서 용문(龍紋)이 의복에 표현되면서 중국 황실복의 상징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이러한 용문은 중국을 상징하는 대표적 문양으로써 현대 디자이너에 의해 많이 표현되고 있고 그 외에 십이장문(十二章紋)을 중심으로 동물의 변화된 문양, 식물 문양, 기하학적인 문양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그림 21, 22>.

또한 로맨티시즘의 영향으로 꽃문양이 많이 나타나는데 식물문양으로 불려야 할만큼 줄기·잎·뿌리가 달려있는 꽃송이, 대나무잎, 엽기설기 엽힌 식물 등이 우아하고 사실적인 문양으로 표현되었고, 중국 회화의 수묵화 기법으로 문양을 표현한다던가 ‘죽의 장막’이라 불리는 중국을 상징하는 대나무 문양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45) 허버트 리드, 「미술의 의미」, 박용숙 역, 문예출판사, 1992, p.61



<그림 19> 2003, Miu miu⁴⁶⁾



<그림 20> 2003, Blugirl⁴⁷⁾



<그림 21> 2003, Miu miu⁴⁸⁾



<그림 22> 2003, Miu miu⁴⁹⁾

46) BAZAAR, 2003년 2월 호

47) BAZAAR, 2003년 2월 호

48) BAZAAR, 2003년 2월 호

49) BAZAAR, 2003년 2월 호

2) 전통적 메이크업

경극은 200년이라는 깊은 역사를 갖고 있는 중국의 전통극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수세기에 걸쳐 천재 예술가들이 창조하고 발전시켜온 독특한 양식을 가진 포괄적 공연예술이다.

전통음악, 시, 창, 영송, 무용, 곡예와 무술이 합쳐진 하나의 위대한 공연예술이다. 사마천의 ‘사기’에 의하면 한(220~206, BC)나라때 이미 궁정에 광대들이 있었고 가면무나 잡희가 성행했으며 당대(618~907)에 와서는 황제가 양귀비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관중에 이원이라는 연희자 양성소를 세워 더욱 발전시켰다고 한다.

이후 여러 형식의 가무극들이 시대와 지방에 따라 각각 다른 형태로 발달해 오다가 1790년 건륭제의 80세 생일축하때 극단들이 북경에서 모여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일반인의 열렬한 호응을 얻어 북경에 정착하여 점차 공연양식의 통일을 이룬 것이 오늘날의 경극이 된 것이다.

경극은 매우 동적이며 곡예적인 요소가 많은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면 수많은 상징적 동작과 창이라 할 수 있다. 경극의 역은 크게 1. 단(旦: Tan, 여자), 2. 생(生: shen, 남자), 3. 초우(丑: chou, 희극적 인물), 4. 정(淨: ching, 장군 및 기타 인물들) 네가지 분류가 되는데 이중에서 화단이라고 불리우는 역은 젊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우아한 춤과 매혹적인 노래로 관객의 인기를 독차지한다<그림 25>.⁵⁰⁾

극의 표현방식은 생동적이고 활발하며 우리가 감상능력을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정밀한 예술이다. 경극의 분장은 일본보다 더욱 다양하고 도식적이다. 역의 성격에 따라 신은 황금색, 용감한 장군은 적색, 희극적 인물은 백색 등을 사용하며 의상도 매우 화려하다.

화단은 독특한 붉은색 분장과 화려한 머리장식이 특색이며 장군이나 위엄있는 남자는 허리까지 닿는 긴수염이 매우 인상적이다<그림 23>. 경극의 화장하면 경극의 전통적인 분장을 떠올리게 되는데 경극의 분장은 중

50) 강경화, 「메이크업 총론」, APC, 2000, p.112

국 연극의 연출에서 모두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은 아니고 생(生), 단(旦), 정(淨), 축(丑)의 4대 배역에서 단지 억압을 나타내는 정각과 축각의 화장에만 분장의 기법을 사용한다.

분장은 극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할 뿐 아니라 특이한 예술 이미지를 창조한다.

· 정각분장 : 정각분장은 전통극에서 성격이 강렬하거나 거친 남자배역이 하는 분장으로 색채와 선으로 구성된 각종 도안을 이용하여, 인물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예를 들어 붉은 색의 얼굴은 좋은 의미를 띄고 있는데 충성과 용기를 대표한다. 검은색 얼굴은 중성으로 용맹하고 지혜로운 자를 대표하고, 푸른색 얼굴과 녹색 얼굴 역시 중성으로 민간 영웅, 독립호걸을 대표한다. 황색 얼굴과 백색 얼굴은 나쁜 의미를 함유하고 있어 흉악한 자를 대표한다. 금색과 은색 얼굴은 신비함을 나타내고 신, 귀신을 대표한다.

· 노생분장 : 노생분장은 보통 얼굴을 그리지 않고 눈썹만 그리며 약간의 파우더만 바른다.

· 소생분장 : 소생의 얼굴은 단각과 비슷하여 분장하기가 번거롭다.

· 단각분장 : 단각분장은 얼굴을 그리지 않고 요염하게 보이도록 한다. 단각의 눈썹화장은 눈을 더욱 아름답게 보이게하고 헤어 스타일도 고도의 복잡한 기술을 필요로 하고 반드시 깔끔하고 가지런해야 한다. 눈이 위로 올라가게 되고 중국인이 최고로 치는 고전적인 봉황눈이 되게 연출한다. 그리고 화려한 머리장식과 의상도 중요하다.⁵¹⁾

오리엔탈 분위기의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는 여자경극 메이크업을 살펴보면<그림 24>

① 피부화장

흰색의 라이닝컬러나 아쿠아 컬러로 얼굴전체를 도포한 후 눈두덩이 전

51) 김영희 외 6, 「토틸 메이크업」, 정문각, 2001, p.115

체에 붉은색 크림쉐도우로 강하게 연출해 주고 핑크계 크림치크로 눈두덩이와 연결하여 잘 펴 발라준다. 투명파운더로 얼굴전체에 유분기가 없도록 도포하고 화이트와 핑크를 섞은 팬케이크로 잘 마무리해 준다.

② 눈화장

쉐도우는 붉은계열로 전체를 도포해주고 리퀴드라이너를 이용하여 눈썹을 화살형으로 강하게 그려주고 아이라인은 새모양처럼 길고 강하게 자극적으로 표현해준다.

③ 입술화장

붉은색으로 작고 도톰함 입술을 연출한다.

④ 볼화장

붉은색으로 눈주위를 광범위하게 상승형의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해준다.



<그림 23> 남자 경극⁵²⁾



<그림 24> 여자 경극⁵³⁾



<그림 25> 경극(패왕별희)⁵⁴⁾



<그림 26> 경극⁵⁵⁾

52) 강경화, 메이크업 총론, 2000

53) 강경화, 메이크업 총론, 2000

54) 김영희 외 6인, 토탈 메이크업, 2001

55) 김영희 외 6인, 토탈 메이크업, 2001

3)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중국 문화의 특징

몇 해전 한차례 휩쓸고 지나갔던 젠 스타일과는 달리 화려함 속에서 동양적인 미를 보여주는 차이니스 스타일, 섹시하고 시크한 구찌쇼나 로맨틱한 발레리나의 튀튀가 등장한 블루걸 쇼는 각기 다른 패션 세계를 추구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에 대한 환상과 동경이다.

차이니스 스타일 속에 감춰진 신비함은 그들이 원하는 글래머러스, 정교함, 종교의 영향으로 인한 영적인 아름다움이 모두 녹아 있기 때문이다.

붉은색 쉼도우를 사용하는 점과 붉은 입술이 Japanese 스타일과의 차이가 없어 보이나 눈썹과 라인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점에 차이를 들 수 있다.

<그림 27>를 한 예로 들어 현대적인 중국식 메이크업을 소개하자면 아래와 같다.

① 피부화장

창백해 보이며 혈색이 느껴지지 않는 베이스를 표현하도록 한다. 충분한 파우더로 마무리한다.

② 눈화장

눈썹 형태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눈썹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경우는 눈썹을 그대로 정리하여 주며, 형태가 잡혀 있지 않을 경우는 아이쉼도우를 이용하여 다소 넓게 형태만 표현해 준다.

눈두덩 주위에 펄이 첨가되지 않은 흰색 쉼도우를 펴준다. 붉은 톤의 아이쉼도우를 눈앞머리 부분에 둥근 느낌으로 위와 눈 중앙을 향해 그라데이션시킨다.

눈동자 중앙 약간 바깥쪽을 기준으로 앞, 뒤를 붉은색 아이쉼도우로 다소 조금 넓게 펴준다. 쉼도우는 뭉치지 않도록 유의하며 강·약 조절을

잘하여 명들어 보이지 않게 한다.

진보라색 쉼도우를 이용하여 아이홀 끝 1/3점에서 관자놀이를 향해 상승선을 주어 홀 안쪽으로 살짝 그라데이션시킨다. 진보라색이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지 말고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적은 면적에서 강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표현한다. 붉은색 아이쉼도우를 이용하여 진보라색 포인트 위쪽 부분을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시킨다.

③ 입술화장

입술색은 다소 붉은 계열로 표현하며 입술형태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거나 수정시에는 작은 느낌의 입술형태를 만들어 준다.

메이크업 못지 않게 헤어도 중국풍의 현대 메이크업을 표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양쪽으로 귀엽게 땀아 올리거나 묶어 올린 귀여운 소녀의 이미지를 표현하기에 적합하며 꽃수 놓인 새틴 의상과 매치되도록 소녀의 등에 그려진 용모양 문신은 홍등아래에서 더욱 모던하게 드러난다<그림 28, 29>.

< 중국 경극 메이크업을 응용한 현대 메이크업의 예 >



<그림 27>⁵⁶⁾



<그림 28>⁵⁷⁾



<그림 29>⁵⁸⁾



<그림 30>⁵⁹⁾

56) 도도아카데미, 메이크업북, 2000

57) BAZAAR, 2003년 2월호

58) BAZAAR, 2003년 2월호

59) SERGE LUTENS, Assouline, 1998

2. 일본

1) 패션

일본의 의복은 여름에는 고온다습하고 겨울에는 한랭한 기후에 적합한 의복의 형태로 발달하였다. 일본의 전통적인 의복 기모노는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고 전체적으로 몸에 밀착되지 않으며 직선적인 재봉을 하여 품에 여유가 있으며 앞이 전부 트여 있어 좌우를 포개어 여미게 되는 전개형(caftan)이다. 여밈의 도구로는 ‘오비’를 허리에 두르고 그 위에 ‘오비지메’라는 끈을 매어 정리하여 입는다. 겨울의 방한을 위해서 기모노를 여러 겹 겹쳐 입는 것이 필요조건이었는데 이는 80년대 많은 일본 디자이너들에게 레이어링(layering)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모티브가 되었다.

이러한 전통적인 일본 패션디자인과 현대 일본풍 패션디자인 양쪽 모두 인체에 대해 서구의 패션디자인과 다른 접근을 하고 있는데, 재봉과 실루엣이 서구 패션디자인의 특징이라면 겹쳐 있기와 추상적인 조형은 일본풍 패션디자인의 특징이라 하겠다.

80년대 패션디자인에서 넓게 과장된 어깨와 풍성한 박스형의 실루엣, 레이어드로 나타난 일본풍은 90년대 패션디자인에서는 자연주의 성향과 미니멀리즘의 영향으로 자연스러운 인체의 곡선을 살리면서 일본 전통의 직선적 재단과 여밈의 형태, 오비를 응용한 단순한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서양 패션디자인의 근원을 탐색하고 새로운 정신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써 기모노의 변형<그림 33> 이외에 건축물이나 기타 생활 양식에 나타난 일본인의 미의식을 차용하여 재창조하기도 하였다.

Issay Miyake가 80년대 일본 전통 종이접기인 ‘기리카미’방법을 의복에 도입한 이후에, 90년대에도 기계적 주름을 잡음으로써 음영에 따른 광택감과 볼륨감의 차이, 색채의 미묘한 변화 등을 느낄 수 있는 기리카미 기법이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다양한 소재의 사용과 함께 평면적 의복에 입체감을 주어 독특한 조형미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⁶⁰⁾

일본 디자이너들이 서구인의 옷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리면서 직선재단의 비구조적인 형태와 겹쳐입기의 창작법 등을 서구 패션에 등장시킨 이래 90년대에는 자연스러운 인체의 곡선미를 살리는 보다 심플한 실루엣으로 나타나고 있으며<그림 31> 그것이 대중화되어 정착되면서 세계에 일본풍을 확고히 심어 놓았다.

일본의 패션디자인은 일정한 형태에서 오는 단조로움을 극복하고 개성을 나타내기 위해 직물의 장식에 주목하도록 하여 색채와 문양의 발달을 가져왔다<그림 32, 34>. 헤이안(平安)시대 여자들의 정장이었던 십이단(十二單)은 여러겹으로 옷을 겹쳐 입음으로써 깃, 수국, 옷자락 등의 색채 배합에 효과를 주었고 거기에 자수를 곁들여서 색채효과를 높였다. 또한 회색계열과 보색대비, 명도대비 등 다양한 대비효과가 특징적이다.

문양에 있어서는 전통적으로 화초문, 운문, 난초, 과일, 매화, 대나무, 백합, 당초 문양과 화조문양 등이 사실적으로 묘사되기도 하였으나 자연물을 기하학적으로 표현한 연속문양 형태가 널리 사용되었다.⁶¹⁾ 특히 막부시대 고소데의 문양표현은 염색, 직조, 자수 등의 방법으로 사생풍, 도안풍 등 다양한 문양을 각종 문화, 예술에 표현했는데 이는 패션문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60) 황춘섭, 「민속의상」, 수학사, 1994, p.82

61) 임복임, 「현대 패션에 나타난 동양 자수에 관한 고찰」, 홍익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p.48



<그림 31> 2003, Blumarine⁶²⁾

<그림 32> 1999, Michiko Koshino⁶³⁾



<그림 33> 2003, Zil Sander⁶⁴⁾

<그림 34> 원)2003, Gucci, Eigner⁶⁵⁾

오)2003, Blumarine

62) BAZAAR, 2003년 2월호

63) 1999년, F/W Collection book

64) The first, 2003년 3월호

65) The first, 2003년 3월호

2) 전통적 메이크업

가부끼는 가부쿠, 가다무쿠 바꾸어 말하면 남달리 언동이 괴이하고 엉뚱하며 색다르다는 뜻이다.

17세기초(1603년)에 출운사원(出雲寺院)의 무용수였던 여인이 경도의 천변에서 춤을 춘 것에서 비롯되었는데 그 후 많은 여성들이 삼미선(三味線)음악과 더불어 관능적인 춤을 추고 매춘행위를 하는 등 풍기문란으로 1629년 금지령이 내려졌다.

여성의 무대진출이 금지되자 남성들로만 구성된 가무단이 등장하였는데 대개 흥안의 미소년들이 아름답고 우아한 여성역을 해내기도 하였지만 이들 역시 동성연애 등 풍기문란으로 공연을 금지당해 차츰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가부끼는 무사계급이 쇠퇴하고 상인들이 득세한 원록시대(元祿時代, 1670~1750년)에 이르러 중산층 상인들이 취향에 맞는 예술의 발전이 요구되어 우수한 각본과 뛰어난 배우의 출현과 더불어 전성기를 이루는데 이때 남자들로만 이루어졌다해서 요로(Yro : 野郎, 남자·놈뎡이) 가부끼라고 불려졌고, 이것이 오늘날 가부끼의 모체가 되었다.

가부끼는 명치유신(明治維新, 1868년) 이후 왕실의 보호를 받으며 꽃을 피웠으며 현대에 와서도 많은 페인트론들의 보호하에 공연되고 있으나 관객은 역시 젊은층보다 중년 이상이 지배적이다. 가부끼는 명칭대로 노래와 춤과 연기로 이루어진 총체연극으로 발전과정에서 인형극인 문악(文樂)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전체적으로 가부끼의 주제는 선과 악의 대립을 다루면서 도덕적인 윤리관을 제시해 주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향락적이면서 애로틱한 요소도 많이 지니고 있다.

전원이 남자들로 구성된 가부끼에서 여자역을 여형(女形, 오나가따)이라고 부르며 이 역을 맡은 배우들은 어릴 때부터 여자역을 위해 훈련을 받는다.

가부끼의 의상은 매우 화려하며 여자들이 추는 가부끼 춤은 오늘날 일

본 기생들이 추는 전형적인 일본춤의 원조가 되고 있다. 가부끼의 소재는 사실적, 서민적인 것이지만 연기는 전체적으로 양식화 되어있고 비현실적으로 질게 분장한 얼굴이라던가 동작들은 인형을 방불케 한다.⁶⁶⁾

배우들의 분장은 매우 과장되었는데 가부끼의 독특한 색감각은 '구마도리'라고 불리는 특수한 화장법으로 잘 표현된다. 예를 들어 강력한 초월자의 힘과 능력을 과장하기 위하여 얼굴과 팔, 다리에는 강한 붉은 색의 선을 그려 혈관이 불끈 불끈 올라온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이러한 '구마도리'는 단순히 힘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부끼 연극의 등장인물의 성격을 적절히 표현한다.

젊은 남자를 표현하는 '무키미-구마'는 눈꼬리 부분에만 붉은 화장을 하며, 사악한 힘을 가진 '쿠제-구마'는 푸른 화장을 하고, 강한 사무라이인 '수지-구마'는 얼굴전체에 붉은 색으로 선을 그리며<그림 36>, 희극적인 역할인 '사루구마'는 이마에 세가닥의 선을 그림으로 희극적인 면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다양한 역할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구마도리' 형식의 화장은 매우 다양한 역할과 형태를 표현하도록 발전되어 왔다.

가부끼 화장에 사용되는 색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색깔별 상징은 다음과 같다.

- ① 붉은색(red) : 용감하고 열정적이며 완고함.
- ② 밝은 파란색(light blue) : 조용하고 차가움.
- ③ 회색 (gray) : 쓸쓸함.
- ④ 검은색 (black) : 악하고 음산함, 공포.
- ⑤ 초록색 (green) : 유령 혹은 악의 정신, 평온함.
- ⑥ 보라 혹은 자주색 (purple) : 고결함, 오만함.
- ⑦ 어두운 갈색 (dark brown) : 이기적이고 하등함.

66) 강경화, 「메이크업 총론」, APC, 2000, p.115

대표적인 여자 가부끼 메이크업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그림 35, 37>.

① 피부화장

화이트로 얼굴전체를 도포한 후 연한 핑크크림 아이 쉼도우를 눈두덩이 전체에 도포하고 관자놀이와 눈 가까이에는 크림치크로 몽치지 않게 펴준다. 흰백분을 전체적으로 파우더 해준 다음 팬케이크로 깨끗하게 마무리한다.

② 눈화장

쉼도우는 연한 핑크색으로 바르고 붉은색 아쿠아컬러로 약간 두껍게 그려준다. 라이너는 검정색으로 그려주고 눈썹은 액상 아이라이너를 이용하여 초생달형으로 그려준다.

③ 입술화장

원래의 입술모양보다 작게 인커브로 붉은색이나 다홍색으로 그려준다.

④ 볼화장

연핑크와 붉은색을 섞어 눈위, 눈꼬리, 눈밑부분을 C자를 그리며 광범위하게 그라데이션 해준다.



<그림 35> 여자 가부끼⁶⁷⁾



<그림 36> 남자 가부끼⁶⁸⁾



<그림 37> 여자 가부끼(게이샤)⁶⁹⁾



<그림 38> 남자 가부끼⁷⁰⁾

67) website 인용

68) website 인용

69) website 인용

70) website 인용

3)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일본 문화의 특징

1980년대 초 일본의 경쟁력 강화로 동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에 맞춰 동양풍의 의상들이 디자이너들에 의해 발표되었으며 이때 일본 디자이너들은 좀 더 발전된 형태의 'Japanese look'을 유행시켜 일본의 민족복을 기조로한 모더니즘의 미학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디자이너들의 의상에 맞추어 변화된 메이크업 스타일은 전통적 가부끼 메이크업을 현대적으로 변화시킨 것들이었다.

동양여성처럼 작게 오므린 듯한 형태의 입술화장, 속눈썹을 표현한 과장된 선들은 동양적 신비감을 표현하고 있다. 짙은 눈썹과 눈꼬리를 길게 뻗은 아이라인 등이 에스닉한 독특한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그림 40>을 한 예로 들어 현대적인 일본식 메이크업을 소개하자면 아래와 같다.

① 피부화장

메이크업 베이스를 얼굴전반에 펴준후 흰색 베이스를 이용하여 얼굴전반에 살색이 보이지 않도록 꼼꼼히 펴서 충분히 두드려 준다. 백파우더를 이용하여 얼굴전체에 매끄럽게 바른다.

② 눈화장

인위적인 눈썹형태를 만들기 위해 눈썹을 지우는 방법을 이용하는데 술이 적은 경우에는 베이스를 두껍게 바르면 눈썹 형태가 흐려보일 수 있지만 그외의 경우는 인위적으로 감춘 후 새로운 형태를 그려준다. 미용비누를 이용하여 감추는 법은 먼저 비누를 불린 후 이쑤시게를 이용하여 얇게 그어서 눈썹 끝부분까지 얇게 펴 눈썹을 눕혀준 후 고정시킨다. 동일한 화운데이션 색상을 이용하여 감추었던 눈썹끝을 다시 한번 발라준다. 감춘 눈썹은 무시하고 앞머리를 기준으로 상승선 쪽으로 점점 가늘게 형태를 잡아준다.

케익타입의 아이라이너를 이용하여 샤프하게 상승형으로 그린다. 아이라인도 다소 차가운 느낌의 메이크업 스타일을 표현하기 위해 앞머리 라인을 더 내리고 끝쪽 라인을 상승선으로 표현해 전체적으로 눈이 날카롭게 보이도록 표현한다. 붉은색 쉼도우를 이용하여 라인을 그려 놓았던 위치에 적은량의 포인트를 주도록 한다. 때로는 흰얼굴에 대조가 되도록 눈썹을 비누로 없앤 후 그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③ 입술화장

입술형태는 다소 둥글고 적게 표현하고 붉은색 립칼라를 사용하며 전체적으로 검은색, 백색, 빨간색의 절묘한 대비적 조화를 이루도록 표현한다.

④ 볼화장

광대뼈 중앙부분에 아주 적은량으로 붉게 살짝 찍듯이 표현한다.

가부끼 메이크업을 응용한 현대의 일본식 메이크업은 오리엔탈 붐을 일으킨 많은 디자이너 컬렉션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템으로 사용되고 있다. 입체감이 없는 동양적인 얼굴형을 표현하기 위한 흰 얼굴, 날카로운 이미지를 위한 상승형의 눈썹과 아이라인, 그리고 작고 붉은 입술은 오리엔탈 메이크업의 기본 스타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시세이도사의 세르즈루텐스는 그런 일본식 스타일을 응용하여 자사 광고에도 선보이고 있다.

<일본 가부끼 메이크업을 응용한 현대 메이크업의 예 >



<그림 39>⁷¹⁾



<그림 40>⁷²⁾



<그림 41>⁷³⁾



<그림 42>⁷⁴⁾

71) BAZAAR, 2003년 2월호

72) 도도아카데미, 메이크업북, 2000

73) The first, 2003년 3월호

74) website 인용

3. 인도

1) 패션

현대로 들어서면서 인위적이고 도식적인 현대 생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정신세계에 대한 본질을 발견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어졌고 영원한 정신적인 귀의처로 세계각국의 구도자들이 모여드는 인도 문화에 대한 동경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렬해지면서 인도풍은 커다란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인도는 열대 및 아열대의 고온다습한 기후에 속하고 인종과 종교를 비롯한 사회적 구성이 지극히 복잡하여 의복 역시 전체적으로 복잡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⁷⁵⁾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의복의 형태를 서구복식의 형태로 바꾸어 전통복식은 의식·의례용으로 입혀지는데 반해 인도는 현재까지도 그들의 전통복식을 일상복으로 착용하고 있다.

인도의 대표적인 민속의상인 도티(dhoti)와 사리(sari)는 재단이나 재봉을 하지 않은 긴 천을 몸에 그대로 둘러 입는 전형적인 권의형(drapery) 의상으로 무굴제국시대 이슬람교도의 지배로 인해 받아들여진 페르시아풍의 화려한 코트와 좁은 바지, 터번 등과 함께 현재 인도 패션디자인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사리는 가장 널리 알려진 여성복으로 기본 의상인 초리(choli)와 스커트(petticoat)를 입은 후에 착장하게 되는데 착장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어 내어 우아함과 여성스러움을 잘 나타내 준다<그림 43>.

허리를 노출하는 짧은 상의인 초리는 날염이나 자수 등을 이용하여 전형적인 형태를 재현한 것, 선 장식을 활용하여 간결한 느낌으로 표현한 것 등의 형태에 통넓은 바지, 사롱 스커트, 폭넓은 스커트 등을 조합하여 현대패션디자인에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전통 사리나 도티의 복잡한 착장방식을 간소화시켜 활동하기에 편리한 형태로 변형시켜 나

75) 황춘섭, op.cit., 1994, p.81

타나고 있다<그림 46>.76)

인도의 대표적인 상의인 네루 재킷(Nehru Jacket)은 네루 수상이 착용했던 것에서 연유한 것으로 현대 패션디자인에서 여성스러운 분위기로 비교적 원형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다. 바지는 샤르와(Shalwar)와 주디다르(Chudidhar)의 형태로 구분되는데 이 또한 인도를 대표하는 복식으로 현대 패션디자인에서 그 형태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인도 남성들의 머리장식이었던 터번 또한 현대 패션에서는 여성의 머리장식으로 자주 활용되는데 이는 시각적인 장식 효과가 커서 동양적인 이미지 표현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현대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인도풍의 형태적 특징은 사리, 도티 등 전통복식의 복잡한 착장방법을 단순화시켜 서구복식의 형태와 인도 전통복식 형태와의 절충, 인도와 다른 동양권 전통복식 간의 절충 양상으로 표현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권의형 패션디자인의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성격과 캐주얼하고 스포티한 성격이 함께 나타나 현대화된 새로운 형태미를 보여주고 있다.

직물에 있어서 인도는 면직물과 견직물의 세계적인 산지이다. 특히 무명 방염포인 사라사는 주로 인물, 조수, 화훼 또는 기하학적인 무늬를 면직물에 그린 것으로 17~18세기에 동인도회사를 통해 서방으로 전파된 이후 프린트 직물 개방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북인도 캐시미르 지방에서는 고급품의 모직물이 생산되는데 이것이 널리 알려져 있는 캐시미어이다. 이 모직물에 흔히 쓰이는 문양이 망고, 사이프러스, 솔방울,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모티브로 한 페이즐리 문양이고 이것은 이국적 취향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패턴으로 현대 패션디자인에서 다양하게 변형되어 나타난다. 또한 인도에서는 의복을 장식하기 위해 각 지방마다 고유의 문양과 기법을 가진 자수가 발달하였는데 그 중에서 독특한 것으로 미러 워크(mirror work)가 있다. 이것은 작은 유리 조각을

76) 박은주, op.cit., 1998, p.16

군데군데 장식함으로써 햇빛이 반사될 때마다 아름다운 빛을 내게 되는 것으로 최근에는 미니멀리즘한 의상에 수공예적인 고급스러움과 독특함을 충족시켜 주는 기법으로써 현대 패션디자인에서 활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림 43> 2003, Jean Paul Gautier⁷⁷⁾



<그림 44> 2002, Dries Van Noten⁷⁸⁾



<그림 45> 2002, Dries Van Noten⁷⁹⁾



<그림 46> 2002, Dries Van Noten⁸⁰⁾

77) 2002/2003, Collection book

78) 2002/2003, Collection book

2) 전통적 메이크업

인도의 문화는 상징주의에 고취되었다. 색채와 숫자, 그리고 인공의 모양이나 자연으로부터 도출된 모양들은 종교적 혹은 일상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단지 피부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인도에서 얼굴의 화장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색채는 한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낸다. 많은 곳에서 여성들은 가르마에 그들이 결혼했다는 표시로 빨강색을 염색을 한다. 특히 신부들은 아름답게 장식이 되고, 피부는 달처럼 빛나게 하기 위해 미음이나 쌀가루를 이용해 환하게 만든다. 그들의 얼굴은 빨강색과 검은색으로 정성들여 화장을 하고 발바닥과 손바닥은 헤너를 가지고 빨강색을 염색한다<그림 51>.

인도에서 헤너는 가족들 중 여성들을 위한 예식의 준비과정으로 서로의 가족들이 헤너를 하는 사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피부 위에는 더욱 진한 색깔을 얻을 수 있고 부부의 변치 않는 사랑을 기원하기도 한다.

결혼 후에는 신부는 남편의 집에서 그의 가족들과 함께 지내게 되는데 결혼을 하고 첫 한달 동안 신부는 요리나 세탁, 청소와 같은 집안 일에서 제외되고 있고 그래서 그녀는 집안에서 자신의 의무를 익히고 새로운 가족들을 알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된다. 그녀의 이런 시간은 그녀의 피부에 헤너의 얼룩이 사라지기까지 지속된다.

인도의 다른 풍습으로는 멘디 디자인 속에 신랑의 이니셜을 숨기고 결혼식 밤에 신랑이 신부의 손에 그의 이니셜을 찾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신랑이 만약 성공한다면 그가 그녀의 최상의 파트너라고 여겼던 것이다. 이러한 결혼 예식에서의 멘디는 여성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신부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대부분 시골지역에서 그리고 비힌두계인들에 의해 행해지는 채색 또는

79) 2002/2003, Collection book

80) 2002/2003, Collection book

문신한 장식들은 매우 중요하다. 얼굴은 점, 줄모양, 달모양, 꽃잎 그리고 덩굴속 모양으로 장식되고 특히 여성들은 그들의 손, 팔, 발 그리고 다리 아랫 부분에 문신과 예술적 문양으로 장식을 한다<그림 50>.

특히 종교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숭배하는 신의 축복을 얻기 위하여 그들 이마에 채색된 상징을 갖게 된다. 인도의 여성들은 신분이나 종교적인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 그녀의 머리를 물들이기도 했다. 헤너의 컬러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빨강은 불을, 오렌지는 떠오르는 태양을 황토색은 피부를, 분홍은 지구를 상징한다.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눈주위에 흑색물감을 놓음으로써 (눈 주위에 검당을 찍는다) 그들을 악한 기운에서 보호할 수 있다고 믿었고 종교적인 믿음이 강한 여성들은 신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 이마를 붉게 물들이기도 했다. 여성들의 이마 위에 빨간점의 의미는 축복과 장식의 표시이다. 또한 이마의 중앙에 보석을 붙이는 것은 힌두교의 종교 예식에서 여성 예배자의 붉은 점을 붙이는 것에서 유래한다. 전통적인 예식에서 승려들은 꽃잎으로 만들어진 파우더가 담긴 그릇 앞에 서서 예배자가 승려를 지나기 전에 그의 엄지 손가락에 꽃잎 파우더를 묻혀 여자의 이마에 찍어 주었다.

Kumkum은 서로 다른 색상으로도 만들 수 있으면 아시아 여성들에게 자신의 의상과 빈디를 매치시키도록 허락되었다<그림 52>. Kumkum은 이제 리퀴드로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색상도 낼 수 있다.

17세기 인도의 얼굴 채색은 종교적인 지도와 궁중 무용으로부터 발생했다. 바로 말하면 오랜 부족의 춤과 전사 계급의 칼춤 그리고 풍부한 몸짓 언어로 표현되며 고전적인 인도의 춤에 기초를 두고 있다.

무희들은 나무로 된 가면을 쓰기보다는 그들의 호흡과 흥내를 방해하지 않는 채색된 화장을 한다. 화장은 자연적인 피부색과는 아무 관련이 없지만, 상징적인 주점과 인물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녹색은 선(善)을, 빨강은 분노를, 그리고 검은색은 혐오감을 주는 것으로 상징한다.

① 헤너(Henna)

헤너는 4~8피트 높이까지 자라는 *Lawsonia inermis*라고 알려진 식물이다. 이 식물의 잎사귀는 타닉산이라는 자연 염색 속성을 지닌 헤너 분말가루를 만들기 위해 말린 다음 빻아진다. 헤너는 더운 지방에서 자라므로 이란, 파키스탄, 인도와 같은 나라에서 발견할 수 있다. 헤너(Henna, 아랍어), 멘디(Mehndi, 인도어)라고 말한다.

헤너는 교원질(피부세포)과 각질(머리카락과 손톱세포)를 쉽게 염색시키는 헤너타닉산이 함유되어 있어 PH 5.5보다 더 산성을 띄게 되므로 피부를 염색시킨다. 헤너타닉산이 세포와 결합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헤너는 반드시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피부와 한참동안 접촉하고 있어야 한다. 이때 피부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은 염색을 더욱 진하게 만든다. 헤너 장식은 피부의 죽은 각질이 없어질 때까지 유지되므로 새로 생긴 피부에서는 헤너자국이 남지 않는다. 보통 피부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2~3주 내에 벗겨지고 새피부로 대체된다.

헤너는 식물의 잎을 갈아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5천년 이전부터 피부를 물들이는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다. 인도와 북부 아프리카, 동남 아시아와 그리고 중앙 아시아에서는 헤너의 물을 들인 사람에게 건강과 행복을 축복해 주는 의미로 알려졌다.

12세기 몽골은 헤너를 인도에 소개했고 인도는 오랜 기간동안 결혼예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헤너 페인팅은 많은 나라와 지역으로 전달되었고 많은 나라를 거치면서 디자인은 더욱 다양해졌다.

일반적으로 인도 디자인의 프로탈과 페이즐리 패턴으로 구성되었고 아라비아 디자인은 좀 더 큰 꽃의 모티브를 손이나 발의 중앙에 그려 넣었다. 또 아프리카 디자인도 대담한 기하학적인 형태로 그려졌다.

멘디는 그들의 신체의 섬세한 디자인으로 장식하면서 충실하게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어 왔지만 헤너가 여성에게만 국한되었기 때문에 흥미진진한 고대의 관습에 관한 이야기는 충실하게 서술되지 못한 면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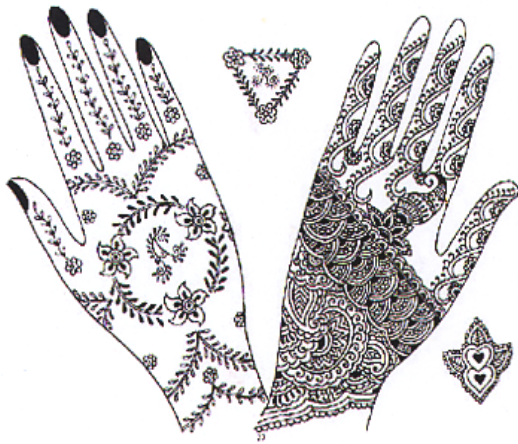
<그림 47> 인도의상을 표현해 놓은 그림(사모드 궁전 소재)⁸¹⁾



<그림 48> 인도 미인의 초상⁸²⁾

81) BAZAAR, 2003년 2월호

82) BAZAAR, 2003년 2월호



<그림 49> Henna Design⁸³⁾



<그림 50> 손을 이용한 Henna⁸⁴⁾



<그림 51> Henna Make-up⁸⁵⁾



<그림 52> Bindies⁸⁶⁾

83) website 인용

84) website 인용

85) website 인용

86) website 인용

3)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인도 문화의 특징

인도 메이크업은 오리엔탈 에스닉 패션메이크업의 하나로 민속적이고 토속적인 의상이나 민속자수, 악세사리 등에 자주 활용되는 메이크업이다. 더운 지방인 인도는 피부톤을 아주 어둡게 연출하며 이마에 ‘빈디’라는 인도 특유의 독특한 문양이나 악세사리를 붙인다<그림 53>.

디자이너 ‘장폴 고티에’의 경우 의상과 더불어 메이크업 또한 쇠붙이 소품 등을 사용하여 코와 귀를 연결하는 등 이색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금색이나 은색파우더로 볼, 이마, 코 등에 선을 긋는 등 더욱더 에스닉한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으며 문신 메이크업을 이에 이용할 수도 있다.

<그림 55>을 한 예로 들어 현대적인 인도식 메이크업을 소개하자면 아래와 같다.

① 피부화장

피부색을 어둡게 보이기 위해 오렌지색 계열의 메이크업 베이스를 이용해 얼굴, 목, 손에 바른다. 오크계열과 다크브라운색의 크림타입 화운데이션을 섞어 다갈색의 어두운 피부톤으로 연출한다. 오렌지색 파우더나 초코렛 밤색 계열의 파우더로 유분기를 제거해 매트하게 표현한다.

② 눈화장

검정펜슬과 아이쉐도우를 이용해 진하면서 두껍게 그려준다. 단, 본인의 눈썹형태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려준다. 피부색이 어두우면서도 화려한 느낌을 주기 위해 라이트 베이지색 쉼도우로 눈두덩이 전체에 펴 발라준다.

밝은 아이보리 쉼도우로 하이라이트를 주고 다크 브라운색으로 아이라인 중심으로 그라데이션 시켜준다. 검정색 펜슬로 위와 아래 아이라인과 언더라인에 까맣게 칠한 후 검정색 쉼도우로 그라데이션시켜 눈을 강조한다. 진한 오렌지색 쉼도우로 눈꼬리를 중심으로 포인트해 주며 펴준다. 흐

린 오렌지색과 옐로우를 섞어 눈썹뼈를 향해 하이라이트를 준다. 짙은 속 눈썹을 붙여 눈매를 뚜렷하게 표현하고 검정색 마스크라로 마무리해준다. 이마에 인도고유문양을 그리거나 빈디라는 인도풍 악세사리를 붙여준다.

③ 입술화장

붉은색과 다크브라운, 밝은 오렌지색 등으로 입술라인보다 약간 크게 그려준다. 립라이너로 입술형태를 깔끔하게 그린후 동일계열 립스틱을 발라준다.

④ 볼화장

다크브라운과 살구색 쉐도우로 얼굴 윤곽을 잡은 후 볼 윗부분은 투명 파우더로 하이라이트를 줘 입체감을 살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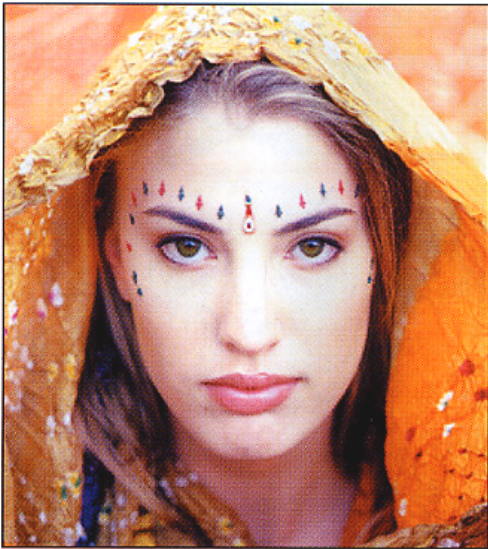
1980년대에 나타난 인도풍은 사리와 초리의 에로틱한 재현, 터번, 테이즐리 문양, 민속적인 감각의 장식 등으로 요약된다.

에스닉 분위기가 풍기는 감각뒤에는 늘 인도풍을 느낄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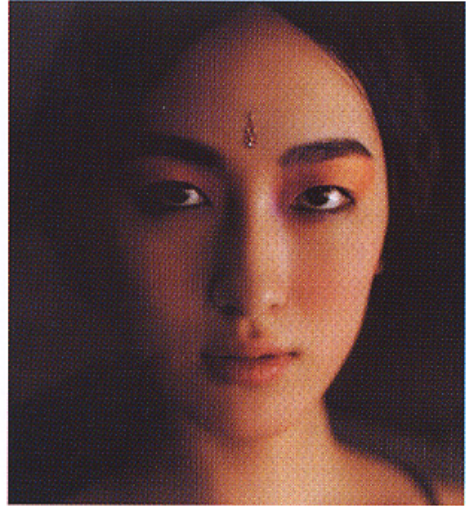
최근 들어 파시미나, 요가, 아올베다 등의 인도식 라이프 스타일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빅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기도 하다.

최근의 컬렉션중 2003 봄/여름 셀린느 컬렉션에서 인도풍 장신구를 착용하고 등장한 모델들은 이마에 점 하나만 찍으면 영락없는 인도 여인이었다. 파리의 디자이너 가스파르 유르키에비치(Gaspard Yurkievich)는 인도의 빈디에서 착안한 보디아트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 인도 메이크업과 빈디를 응용한 현대 메이크업의 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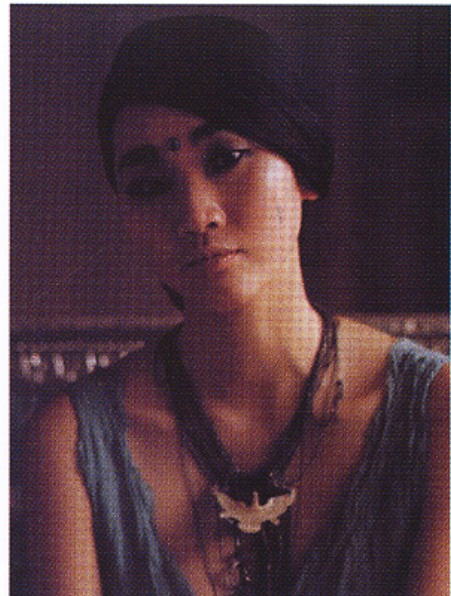
<그림 53>87)



<그림 54>88)



<그림 55>89)



<그림 56>90)

87) website 인용

88) BAZAAR, 2003년 2월호

89) BAZAAR, 2003년 2월호

90) BAZAAR, 2003년 2월호

4. 한국

1) 패션

서구 패션디자인에 중국, 일본, 인도 등의 전통적인 요소가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으로 인식되어 도입되어 오고 있는 것에 반해 한국의 전통 요소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그 도입 정도로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나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이신우의 90년 도쿄 컬렉션, 93년 파리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 데뷔를 시작으로 진태옥, 이영희, 홍미화 등 한국 디자이너들의 국제 무대로의 진출이 가속화되어 서구 패션디자인에 한국적 조형미를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국풍의 현대 패션디자인의 형태는 조선시대 복식의 형태를 이어받은 저고리, 치마, 바지, 두루마기를 들 수 있으며 치마와 저고리로 구성되는 여성복식의 상박하후(上薄下厚) 형태와 자연스러운 실루엣,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곡선의 아름다움은 현대 패션에서 한국 전통미를 표현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요소이다. 특히 치마 저고리가 대칭균형을 이루는 데 반하여 저고리의 여밈 역할을 하는 옷고름과 저고리 길에 사선으로 얹혀 지는 깃의 비대칭은 균형을 깨는 비균제성의 특징을 드러내고 치마는 치마폭과 허리띠로 이루어진 간단한 구조로 일정한 형태를 갖지 않고 착용자의 울동에 따라 유동적인 선을 형성하여 입체성을 표현하는 주름으로 드레이프의미를 나타낸다.

90년대 초부터 한국 디자이너들이 전통 한복의 착장법과 한복에서 나타나는 풍성하고 여유있는 실루엣, 치마저고리의 비례, 저고리의 디테일과 같은 형태적 특징을 이용하여 세계 무대에 진출하여 주목을 받았지만 서구 디자이너들에 의한 한국풍의 표현은 아직까지 미흡한 편으로 한국의 형태미를 인식시키는 수준으로 머무르고 있다.

복식 소재로는 거칠고 투박한 삼베와 마직물과 소박한 무명, 노방 등을 사용하여 선의미를 구체화시켰다. 특히 울이 굵고 거친 느낌의 삼베와

섬세하고 단아한 아름다움과 넓게 비치는 천연의 아름다움으로 선정적인 느낌을 주는 모시는 현대 패션디자인에 있어 한국풍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는 소재이다.

한국 전통 복식에 나타난 색채는 백의 민족이라 불리는 백색과 함께 강조색으로 나타나는 원색의 조화로 크게 구분된다. 우리 민족이 애호했던 백색은 대개의 경우 표백된 순백색이 아니라 소재색 그대로인 소색(素色)으로 옅은 색상을 띠는 깊은 맛을 주는 백색으로 소박한 느낌을 주며 음양 오행사상에 기초한 청색, 백색, 흑색, 황색의 원색인 오방색은 주술적이거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데 불교의 사찰과 궁궐에서 사용하던 단청과 혼례나 어린이 돌 옷에 사용되는 색동이 그 예이다.

전통적인 문양으로는 장수를 의미하는 십장생을 중심으로 사군자, 목단, 연꽃, 수복문자의 길상문(吉祥紋)과 풍경, 나비, 박쥐, 용, 호랑이, 봉황, 등의 유교적인 염원성이 강하게 담긴 문양이 있다.⁹¹⁾

90년대 초 전통복식의 형태를 주로 응용하였던 것과 달리 90년대 중반 이후의 패션디자인에서는 전통문양과 벽화, 민화, 풍속화 등을 모티브로 한 문양을 프린트하여 서구 복식의 조형성에 접목시킨 특징적인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전통미를 바탕으로 현 시대 감각에 부응할 수 있는 디자인 개발의 시도로 보여지며 세계 패션디자인에 한국적 오리엔탈리즘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91) 임복임, op.cit., 1993, p.37



<그림 57> 2003, Lee Young Hee⁹²⁾



<그림 58> 2002, Lee Young Hee⁹³⁾



<그림 59> 2001, Lee Young Hee⁹⁴⁾



<그림 60> 2001, Lee Young Hee⁹⁵⁾

92) BAZAAR, 2003년 2월 호

93) website 인용

94) website 인용

95) website 인용

2) 전통적 메이크업

우리나라 화장의 기원도 서양에 못지않게 오래되었다. 화장술과 화장품이 발달하였으며 화장행위에 대해서도 개방적이었다. 단지 화장품의 산업화 과정이 더디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서양의 화장역사에 뒤쳐져 보이루뿐이다.

① 고조선시대

우리나라 화장의 역사는 고대 단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단국설화에 보면 곰과 호랑이가 인간이 되기 위하여 쑥과 마늘을 먹고 100일동안 햇빛을 보지 않는 내용이 나온다. 여기에서 사용된 쑥과 마늘은 미백과 피부미용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제품이고 햇빛을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당시의 지배층이 흰색 또는 흰피부색을 선호했음을 보여준다.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향을 피웠다는지 신분계급을 나타내기 위해 장식물을 달고 색을 칠했다는 것 등은 서양과 크게 다를 것이 없으나 피부를 보호하고 희게 가꾸려는 노력이 일찍이 행하여졌다는 것은 특이할 만한 사실이다. 또한 낙랑시대의 유물중 채화칠첩에 있는 인물상을 보면 머리는 단정히 정돈되어있고 이마를 넓히기 위해 앞머리카락을 뽑았으며 눈썹을 굵게 강조하는 등 이 시대에도 미적인 면을 추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고 있다.

② 신라시대

특히 신라시대에는 ‘아름다운 육체에 아름다운 정신이 깃든다’는 영육일치사상의 영향으로 남녀 모두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기였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시조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났을 때 용모가 매우 수려했는데 목욕을 시켰더니 몸에서 광채가 났다고 한다. 그의 부인 알영도 미모와 몸매가 뛰어남을 강조하였으나 단지 입이 새의 부리같았으나 목욕 후 완벽한 아름다움을 되찾았다고 쓰여져 있다.

이 시대의 목욕은 미를 더하기 위해 또는 하나의 의식 수단으로 행하여

진 듯하다. 세제로는 팥, 녹두를 가루내어 사용하거나 수세미 껍질이나 부석으로 때를 밀기도 하고 밀기울이나 쌀겨를 무명주머니에 넣어 목욕물에 띄워서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같은 목욕제를 사용한 다음에는 콩이나 팥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 반드시 향을 사용했는데 향료로는 향기가 짙은 꽃을 말려 가루로 만들어 썼다.

이 시대 실력있는 리더의 절대적인 자격으로써 아름다운 외모가 요구됨으로써 화장문화의 발달을 가져온 시기였다. 동백이나 아주까리 기름으로 머리를 손질하였으며 분꽃씨 가루나 활석가루 등으로 물에 개어 얼굴에 발랐다. 그러나 부착력이 너무 약하여 후에 납을 함유시켜 처리한 연분을 만들어 쓰게 되었다. 또한 나무재를 개어 눈썹을 그렸다.

즉 이 시대에서의 화장은 하나의 권력자원이으로써의 의미를 지녔다고 보여진다.

③ 고구려시대

고구려 여인들의 화장문화는 5, 6세기경의 평남 용강군 소재 쌍용총의 벽화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 벽화에는 시녀가 그려져 있는데 머리엔 관을 쓰고 옷깃은 붉으며 뺨에는 연지가 찍혀있다. 이 벽화를 잘 살펴보면 고구려 여인들의 얼굴은 보름달처럼 둥글게 생겼고 눈썹은 짧고 뭉툭하게 그렸으며 머리는 틀어서 엮고 입술에 연지를 발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대륙에 오랫동안 전래하던 화장술로 요염한 자태를 나타내는 화장법이다<그림 61>.

④ 백제시대

두발과 화장은 곧 그 신분을 나타냈으며 대부분의 여인들은 은은하고 부드러운 화장을 위하여 분을 바르되 연지는 사용하지 않았다. 백제의 화장문화는 일본에 영향을 주어 화장술이 일본으로 전파되었을 정도의 높은 수준이었다.

⑤ 고려시대

고려시대에는 화장이 여성의 신분에 따라서 두가지 뜻으로 이원화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기생의 분대화장과 여염집 부인의 옅은 화장으로 구분되는데, 그 당시의 기생들은 교방에서 가르쳐 준대로 분대화장을 해야했고, 여염집부인들의 화장은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써 분대화장을 기피하고 옅은 화장을 함으로써 기생과 구분하고자 했다.

이 시대부터 화장이 자신의 계층이나 신분을 표현하는 도구의 의미로써 사용되었다고 추정된다. 즉 개개인의 정체성이 차별화된 화장의 방식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62>.

⑥ 조선시대

조선시대에는 유교적 도덕관념의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사상과 내외 사상의 영향으로 외모보다 내면의 아름다움, 즉 부덕이 강조되어 부용은 깨끗하고 부드러운 마음가짐의 표현이라고까지 정의하였다. 따라서 여성의 화장이 부덕한 행위로 간주되기조차 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조선시대의 화장품 생산이 위축되거나 화장에 소홀했던 것은 아니며 오히려 화장개념의 세분화가 촉진되었던 것이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삶을 강요받았던 조선시대 여성들에게 있어서 화장의 필요성이 점차 상실되어 자신의 아내 혹은 며느리로서의 여성상에 대해서는 ‘얼굴은 둥글고 통통하며 살빛은 흰 편이고 흠터나 잡티가 없다. 전체적인 골격의 이상형은 건강하고 머리술이 많고 검으며, 인중은 길고 입술색은 붉은 빛을 띄어야 아들을 잘 낳고 인내심이 강하고 원만한 성격의 소유자’라 여겼다.

따라서 그 당시 여염집 여성들의 화장은 아들 잘 낳는 모습으로써의 기능을 위한 것으로 사용되었으며 점차 결혼, 외출의 의식행위로 그 개념이 바뀌어 갔다.

그러나 그 시대 남성들이 이상적으로 삼았던 미인의 모습은 부덕한 모습으로써의 여성이 아니라 앵두처럼 붉고 작은 입술, 초승달 같이 흐리고 가느다란 눈썹에 쌍꺼풀없이 가느다란 눈, 마늘썹처럼 생긴 자그마한 콧망울, 반듯하고 넓은 이마, 턱이 다소곳하게 작고, 동그랗고 아담한 계란형 얼굴, 이런 전통미인의 모습은 한국 회화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 초상으로 평가되는 조선후기 화가 신윤복의 ‘미인도’에 잘 나타나 있다<그림 63>.

즉 정실부인로서의 여성에게는 부계혈통 보존을 위해서 화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요한 반면, 그들의 유희 대상으로써의 기생신분의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분대화장이 허용됨으로써 가부장제하에서의 이중적인 성윤리관이 화장문화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음이 보여진다.

또한 그당시 ‘미인박명’사상이 문화적 관념으로 자리잡음으로써 미인이거나 화장과 같은 외모가꾸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형성에 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의인소설인 <여용국전>이 여성의 화장을 국가정치에 비유하여 권장하고 있고 화장품과 화장기구가 18종이나 등장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또 숙종(1673~1720년) 연간에 화장품 행상인 매분구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에 화장품의 생산, 판매가 산업화할 조짐을 보일 정도로 다양하게 대량 소비되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미용법도 발달하여 조선시대 규합총서에는 ‘겨울에 얼굴이 거칠어지고 터지는데 달걀 세개를 술에 담가 김새지 않게 붓하여 네 이레 두었다가 바르면 얼굴이 트지 않고 옥 같아진다’는 등의 미용법이 수록되어 있고 이밖에 여러 가지 두발의 형태, 입술 그리는 방법, 눈썹 그리는 방법 등의 내용도 담겨져 있다.

1922년에 제조허가 1호로 출범한 박가분의 경우<그림 64> 인기를 얻어 하루에 5만갑이나 팔렸다고 하지만 생산방식이 재래식에 머물렀고 남성분의 부작용으로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외제 화장품과 아울러 입체화장기법이 도입되어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는데 사회적 물의가 적지 않았던 신여성과 기생중심으로 신식화장이 신속히 보급되어 화장에 대한 경원감정이 확대되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사용하기 간편한 신식화장품과 색채화장이 도입, 보급되는 과정에서 다소 마찰이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일시적이긴 하나 궁중에 화장품 생산을 전담하는 관청인 보염서가 설치된 적도 있고, 임진왜란 직후인 선조(1567~1608년)때 일본에서 발매한 ‘아사노쓰유(아침이슬)’라는 화장수가 광고 문안 가운데 ‘조선의 최신 제법으로 제조한...’이라는 구절이 있고 보면, 조선시대 중기까지 화장품 제조기술은 높은 수준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러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수공업 수준을 탈피하지 못하고 산업화가 늦어져 외국의 화장품 기술에 비해 뒤떨어졌다.

⑦ 근대

근대 개화기에는 신식화장품과 신식화장법이 도입되면서 화장문화의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한다. 신식화장법이 유행하면서 입술 연지색이 짙어지고 향수와 비누의 향내가 강해졌다. 특히 이 시대에 있어서 유행이란 것은 일종의 문화적 특권에서부터 비롯되었으며, 유행이란 전통적인 사회에 대한 이질적인 문화를 접목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따라서 조선사회에서 어느 정도 일탈적인 행동양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었다.

이 시대의 화장, 옷차림은 사회적 규범에서 어긋난 사람 내지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사회적 집단을 형성한 사람들 -주로 신식여성과 기생 및 카페걸, 다방마담, 영화배우- 에 의해서 먼저 유행되었다. 일부 신여성들의 자유연애 예찬과 이에 대한 비난으로 신식화장을 한 여성들은 바람둥이 또는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으로 지칭되기도 했다.

여염집 여성들은 그들과 구분되기 위해서 더욱 화장을 기피함으로써 종

래 기생들의 화장과 여염집 여성의 화장 구분이 더욱 심화된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서구의 성해방적인 시각이 몰려오면서 여성의 몸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화장품의 본격적인 대량생산과 광고 등을 통해서 우리의 미에 대한 기준이 서구의 것으로 대체되어 가는 경향이 나타난다.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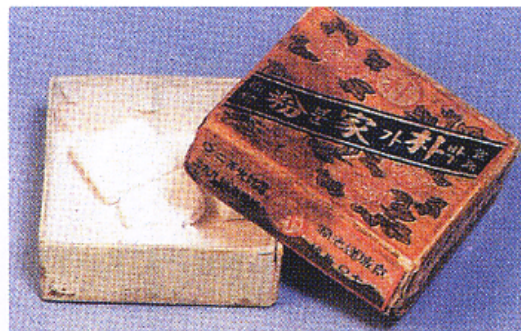
<그림 61> 쌍영총 고분벽화⁹⁷⁾



<그림 62> 하연부인상⁹⁸⁾



<그림 63> 신윤복의 미인도⁹⁹⁾



<그림 64> 박가분¹⁰⁰⁾

96) 김광숙 외 3인, 「The Make up」, 예림, 2001, p.22~26

97) 김광숙 외 3인, The Make up, 2001

98) 김광숙 외 3인, The Make up, 2001

99) 김광숙 외 3인, The Make up, 2001

100) 김광숙 외 3인, The Make up, 2001

3)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한국 문화의 특징

모든 메이크업의 이론이 선진국으로부터 도입되었지만, 한복 메이크업은 우리나라에서 연구되고 정착된 이론이다. 가장 한복에 잘 어울리고 우리 전통의상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한복 메이크업에 대해 살펴보자.

일반 한복은 여성적인 부드러움과 화사하고 우아한 이미지, 섬세하고 정교한 이미지를 표현해야 한다. 따라서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베이스의 경우 내츨 베이스보다 한단계 밝은색을 사용하여 밝은톤으로 표현하며 눈썹은 검정 펜스를 이용하여 곡선의 반달형 눈썹을 그려준다. 립은 주홍, 핑크, 레드의 난색계열로 작고 도톰한 입술을 표현해준다. 색상은 부드러운 유사색 대비를 사용하는데 이때 아이섀도우는 단조롭고 심플하게 표현한다. 메이크업의 색상은 한복치마색에 맞춰 선택하는데 립컬러의 경우는 연령에 따라 맞춘다.

젊은층의 경우는 화려한 분위기를 내기 위해 고명도의 색상을 사용하고 중년층의 경우는 침착하고 차분한 성숙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저명도의 색상을 사용한다.

<그림 65, 66>을 예로 들어 현대적인 한복 메이크업을 소개하자면 아래와 같다.

① 피부화장

베이스는 밝은톤으로 내츨 베이스보다 한단계 밝은 색을 사용한다. 한복색이 블루, 바이올렛, 핑크일 경우는 핑크계로, 한복색이 옐로우, 오렌지, 브라운, 코털일 경우는 아이보리 베이지계로 한다. 그리고 밝고 화사하고 깨끗하게 화운데이션을 도포한다. 페이스 파우더는 많이 사용하도록 하여 보송보송한 효과를 연출한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위주로 메이크업을 한다.

② 눈화장

눈화장을 할 때 섀도우는 옷에 맞춰 밝은 색을 사용하고 선강조 메이크업을 한다. 그리고 섀도우는 여성스럽고 우아하게 처리해야 하며, 2가지 정도의 색을 심플하게 표현하여 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레드계 한복일 경우는 레드, 청색으로, 오렌지계 한복일 경우는 브라운, 오렌지, 카키, 그린 옐로우로, 와인계 한복일 경우는 와인, 퍼플로 표현한다. 만약 색동 한복일 경우는 치마색에 맞추도록 한다.

아이라이너는 선강조 메이크업을 해야하며 이때는 케이크와 리퀴드 타입의 제품을 사용하고 가늘고 길고 정교하며 또렷하게 표현하도록 한다. 마스카라는 검정색을 사용하여 정교한 긴눈썹을 연출하고 속눈썹과 동그란 눈을 강조한다. 눈썹은 가늘고 긴 곡선형으로 그리되 앞머리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꼬리는 샤프하고 정적으로 그려준다.

③ 입술화장

립라인의 모양을 아웃커브 시켜주어 부드럽고 둥근 느낌의 입술이 되도록 하며 한복 저고리 색상과 어울리는 색을 바른다.

④ 볼화장

화사함과 우아함을 살리기 위해 볼터치는 반드시 하도록 하며 립과 동일계열 색상을 선택하여 은은하게 연출한다.

한국의 대표적인 개량 한복의 선두주자인 이영희는 세계 여러 나라에 한복의 아름다움을 소개하였다. 1993년 파리 컬렉션에 처음으로 참여하였는데, 한복의 라인과 고유의 혼이 깃든 새로운 스타일을 간결하고 소박하게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여 찬사를 받았다. 1994년 파리에 부티크를 열고 1996년에는 파리 퓌상부르궁전 오랑제리 전시장에 ‘한복·바람의 옷’이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열었다.

특히 석주선의 영향을 받아, 한복을 세계인에게 입히겠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 한복의 소박하고 투박한 이미지를 강조하여 심플하고 내추럴하게 표현하며 거의 모든 아이템을 크로스 코디네이션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면·마·모시 등의 자연스러운 멋을 그대로 살린 자연스러운 스타일의 팬츠와 미드리프의 간단한 상의에 가볍게 걸치는 두루마기형의 재킷, 한복 치마를 응용하여 상체는 몸에 붙고 아래 쪽은 볼륨감있는 형태의 단순한 원피스가 많으며, 호리호리한 라인에 비치는 소재를 겹으로 하여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순백색을 기본 색상으로 회색, 감색, 하늘색, 복청색 등 햇빛에서는 가벼워지고 그늘에서는 더욱 깊어지는 두 얼굴의 미묘한 색상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이브닝 드레스로는 과감한 색의 조화가 돋보이며 강렬한 빨강과 노랑, 꽃분홍 및 다양한 파스텔톤을 사용한다.

한복의 느낌을 주제로한 의상들에게 어울리는 메이크업은 대부분 여러가지의 색상을 사용하지 않는다. 의상 자체의 디자인이나 색상이 화려하기 때문에 그 의상의 색을 살릴 수 있도록 단아하고 고전적인 분위기의 채도가 낮은 색을 많이 사용한다.

한국의 현대 메이크업은 특별히 정해져 있는 패턴이 있는 것은 아니라 의상의 분위기나 디자이너가 추구하는 이상이나 느낌에 따라 연출되고 만들어진다.



<그림 65> 한복 메이크업¹⁰¹⁾



<그림 66> 한복 메이크업¹⁰²⁾

< 한국적인 응용 메이크업의 예 >



<그림 67>¹⁰³⁾



<그림 68>¹⁰⁴⁾

101) 김광숙 외 3인, The Make up, 2001

102) website 인용

103) Nobless, 2003년 4월호

104) Nobless, 2003년 4월호

V. 결 론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은 동양과 서양이라고 하는 상대적 위치에서 만들어진 존재론적, 인식론적 구별에 근거한 사고방식으로써 서구인들 중심의 시각에서 지역적, 문화적으로 타자에 대하여 내린 개념으로써 일반적으로 동양적 취미나 동양적 정서 혹은 동양적 예술에 대한 이해로 정의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을 단지 취미나 흥미만으로 또 지배하고 정복하는 대상으로써의 존재가 아닌 동양을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인식하고 동양의 가치관, 문화 전반에 관한 폭 넓은 이해와 관심을 갖고 더 나아가 동양적인 사상과 정신을 연구하고 있다.

현대 사회가 동시대적, 동공간적인 글로벌 시대로써 다양하고 복잡한 문화가 서로 어우러져 복합적 다중문화가 나타나게 되면서 오리엔탈리즘에도 전통주의적, 자연주의적, 절충주의적, 미래주의적인 개념이 혼재된 'New Orientalism'을 표방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들로 현재의 오리엔탈리즘 개념이 과거와는 다른 성격으로 구분하여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패션에서의 오리엔탈리즘은 지리적으로 터키 동쪽 아시아지역의 민속복식에 나타난 형태적 특징들과 색채, 문양 등을 서양 패션디자인에 도입하여 민속적이며 이국적인 느낌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20세기 이전 오리엔탈리즘이 취미와 기호수준에 머물러 동양복식을 그대로 착용하였던 것에 반하여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서양 패션디자인에 동양 패션디자인의 특징들을 혼합하기 시작하였고 20세기 후반에 이르면서 동양사상에 대한 본질적 재인식이 시도되고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이동하는 전 세계적인 변화와 맞물리면서 과거 서양 문화에 기인한 패션디자인이 주류가 되고 이에 상대적으로 비주류로

인식되어왔던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은 창조적이고, 복합적이고, 다양한 패션디자인으로 그 응용이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다. 또한 메이크업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은 19세기초 오리엔탈리즘이 의상에 반영되면서 서구 열강들이 식민지 시대하에서 이국정취에 심취되었다.

연극에서 비롯된 여성들의 메이크업도 이 시기 유럽을 휩쓴 동양풍에 대한 열정이 커지면서 더욱 정교한 표현으로 발전되었다.

1911년 미국 <보그>지에서는 동양 여성의 미의 기준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파리 디자이너 앙드레 꾸레주에 의해 동양의 느낌을 메이크업으로 강조한 동양모델이 무대에 서기도 하였다.

1980년 일본 패션디자이너들의 세계진출로 인해 이제껏 게이샤같았던 동양의 메이크업은 전통적 시각으로부터 탈피되었으나, 1990년대부터 메이크업 아티스트 세르즈루텐스에 의해 일본적 취향에 영감을 준 메이크업 스타일이 다시 선을 보이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대 패션과 메이크업에서 재해석되고, 부각되고 있는 오리엔탈리즘의 접근된 방식과 표현방법을 규명하고자 지역특성별에 따른 오리엔탈리즘의 전통적인 스타일과 현대적인 스타일의 변화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할 수 있었다.

첫째, 중국은 고유의상인 치파오가 현대패션에서 그 형태적 특징이 가장 많이 응용되고 있으며, 실크직조가 그 복식의 화려함을 더하고 금색 및 황색 색조, 문양에서는 용문이나 꽃모양, 식물문양 등의 선호가 두드러져 현대 패션에서도 빈번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

200년 역사를 가진 경극은 4가지 역에 따라 메이크업 스타일과 색이 정해지나 경극의 분장은 일본보다 더욱 다양하고 도식적이다. 현대에 와서는 경극의 특징을 응용한 여러 패턴의 메이크업이 중국풍의 의상에 어울리도록 표현되어지고 있다.

둘째, 일본은 기모노에서 레이어링의 아이디어를 얻었으며, 서구인의 옷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리면서 직선재단의 비구조적인 형태와 겹쳐입기

의 창작법을 서구패션에 등장시키고 직물의 장식에 주목하도록 하여 색채와 전통문양의 발달을 가져왔다. 흰얼굴에 화살형 눈썹, 작은 붉은 입술이 특징인 전통적 가부끼 메이크업은 디자이너들의 의상에 맞추어 현대적인 동양적 신비감을 표현하고 있다.

셋째, 인도는 사리, 도티 등 전통복식의 복잡한 착장방법을 단순화시켜 서구복식의 형태나 인도 전통복식 형태와의 절충양상으로 표현된다. 이국적 취향의 페이즐리 문양과 인도 고유문양 자수 등도 현대디자인에서 활용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인도에서 중요한 문화중 하나인 헤너는 행운과 축복의 기원의 상징이었고 악의 기운을 막는 힘이 있다고 믿었다. 현대에 와서는 인도의 여성을 표현한 메이크업과 헤너 그리고 빈디를 응용한 메이크업이 선보이고 있다.

넷째, 한국은 중국, 일본, 인도 등의 서구 패션사의 발전에 비해 그 도입 정도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나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한국 디자이너들의 국제 무대로의 진출이 가속화되고, 90년대 초 전통복식의 형태를 응용했던 것과는 달리 90년대 중반이후에는 전통문양과 벽화, 민화, 풍속화 등을 모티브로 하여 서구 복식의 조형성에 접목시킨 특징적인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모든 메이크업이 선진국으로부터 도입되었으나, 한복 메이크업은 우리나라에서 연구되고 정착된 메이크업이며 현대에는 디자이너들의 패션경향에 따라 다양하고 패션어블하게 표현되어지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지역특성에 따른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은 현대 사회에 적합하도록 그 형태는 간소화되었지만 고유의 형태, 문양, 색채 등으로 현대패션과 메이크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시대적 흐름과 예술적 배경에 맞추어 더욱 풍부하고 새로운 감성으로 현대에 나타나고 있다.

갈수록 각종 기술의 최첨단화로 인하여 세계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전세

계가 단일 공동체가 되어 각 민족고유의 문화적 차이가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에 ‘New Orientalism’이 보다 더 창의적이고 다 문화적인 형태로 자연주의적, 미래주의적, 전통주의적인 요소를 혼재하고 있는 패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써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문헌

(단행본)

- 한국 브리태니커, 브리태니커 세계 대백과사전, 1993.
세계 대백과사전, 동서문화, 1999.
강경화, 메이크업 총론, APC, 2000
김영희 외 6인, 토탈 메이크업, 정문각, 2001
김광숙 외 3인, The Make-up, 예림, 2001
Beauty & Health 연구회, 메이크업 & 스타일 100년사, 현문사, 2001
Beauty & Health 연구회, 美 100년사, 현문사, 2001
정홍숙, 서양복식 문화사, 교문사, 1997
전완길, 한국화장문화사, 열화당, 1999
김희숙 · 이은임, 메이크업과 패션, 수문사, 1996
천지연 외 3인, Face in Make-up, 청구문화사, 2001
이승환, 오리엔탈리즘을 해부한다, 전통과 현재, 1997
정현숙, 20세기 패션, 경춘사, 1992
유송옥 외 2인, 패션문화사, 교문사, 1996
한명숙, 메이크업 디자이너를 위한 마키아주 예술, 청구문화사, 1999
강대영, 한국 분장예술, 지인당, 1999
青木英夫, 서양화장문화사, 원유사, 1976
김희숙, 한국과 서양의 화장문화사, 청구문화사.
Edward W. Said,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1991

(논문)

- 노희영, 현대 아트메이크업의 회화적 경향과 기법에 관한 연구, 한성대 예술대학원 석사논문, 2002

- 박상오, 오리엔탈리즘이 현대패션디자인에 미친 영향에 관한 고찰,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2
- 허정문,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오리엔탈 스타일에 관한 연구,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1
- 김수진, 패션과 메이크업 경향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7
- 권경애, 눈메이크업이 안면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성대 예술대학원 석사논문, 2000
- 권유진, 오리엔탈리즘의 패션체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8
- 권기영, 현대복식에 나타난 Asian Ethnic Fashion에 대한 연구, 복식 Vol.26, 1995
- 조은별, 20세기 화장문화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5
- 박은주, 1990년 패션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8
- 김선영, 동·서양화장문화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2
- 박보영, 한국·중국·일본 여성의 색조 화장문화,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7
- 최영경, 한국여성의 화장문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7

ABSTRACT

An Analysis on the Orientalism of Modern Fashion and Make up Trends

Kim, Hye Sook

Major in Make-up Arts

Dept. of Fashion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

Hansung University

In the 20th century, the Orient internationally had held a key post in the spheres politics and economy on account of advent of nationalism. By combining cultural factor such as postmodernism, flavor of the Orient had placed Orientalism as one of the current which is leading world culture.

The fact of orientalism is generally motive of expression or material with oriental hobby. It makes east longitude against the namely eastern country world where one tendency person of 19th century romantic feeling attentions represents a country hobby with the fact that means the love of the orient art

However, the orientalism of today recognizes the Orient as one of independent individual concept not for the sake of arousing the interest or the target of domination and conquest. Going one step forward, the oriental phenomena and the spirit is being studied with understanding

of its own value and the basis of cultural.

Fashion, was caused by Western culture, had led the world vogue in the past, however, Orientalism which was understood as the non-mainstream faction is attempting to new and various fashion by having application of this trend.

As going with the flow, a study of Orientalism's effect on modern fashion and makeup has a sufficient significance.

This study could present as following results through analyzing a change of Orientalism by a regional special theory to examine an approaching method and the way of expression for Orientalism, is re-interpreted and embossed closely in modern fashion and makeup.

First, China is applying the form of character which is from Qipao to modern fashion. According to increasing a remarkable preference of silk weaving, the golden and yellow color tone, a dragon pattern and floral design, and so forth, those are being frequently used in modern fashion.

Second, Japan got an idea of layering from Kimono. It also brought out the development of a color and a traditional pattern by getting an eye to decoration of textile and by introducing a non-constructural form of a straight cutting and a creative way of layering to Western fashion.

Third, India presents a compromise aspect between Western fashion and its traditional dress through simplifying a complicated traditional dress such as Sari, Dhoti. Moreover, a Paisely pattern and india's own embroidery are being frequently applied in modern design.

Forth, Korea was insufficient a matter of degree of introduction by comparing to Western fashion history of other counties such as china,

japan, and India, but the Korean fashion designers advance into international stage is being accelerated as entering in 1990.

As mentioned above, Orientalism which is related to a regional special theory is simplified to suit our modern society, but it has a large effect on modern fashion and makeup with its own feature, pattern, color, and so forth. Today it is also showed with new and a great store of feeling by going with the flow and artistic background.

As time goes by, globalization is being accelerated due to various up to date technology and the global trend of a singular common society makes cultural differences of each race to be disappeared little by little. Keeping step with this tendency, it is sure that new Orientalism, is more creative and cultural form, will be beared a resonable part as new paradigm of fashion which is mixed naturalism, futurism, and traditionalism.